

안동 역사의 유가중심적 전개

- 조선시대 이후 안동 역사의 개관 -

조 동 결*

머 리 말

안동이 역사 표면에 부상하는 것은 후삼국 때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것이 왕건(王建)을 도와 견훤군을 물리친 고창전투의 고사였다. 그때 공을 세운 세 사람은 고려에서 3공신 또는 3태사(太師)의 영광을 누렸다. 그후 안동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려에 대한 반란군을 몇 번에 걸쳐 막고 진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게 고려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고려말 홍건적의 침입때 공민왕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안동에 피신했던 것이다.

그러한 안동이었으므로 고려를 전복한 조선왕조 건립에는 반대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았다. 조선왕조 건립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신유학(성리학)은 안동지방이라 할 수 있는 풍기군의 안향(安珦)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조선 건국에 앞장서서 활동한 정도전(鄭道傳)이나 권근(權近)이 모두 안동지방 인물이고 보면, 고려에 충직했던 안동이 조선조 건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여기서 말하는 안동은 행정구역상의 이름이고, 안동지방이란 말은 경상북도 북부의 안동문화권 또는 안동생활권을 가리킨다. 지형으로 보면 북쪽의 태백산을 정점으로 왼편의 일월산과 오른편의 소백산 줄기의 남쪽 산지 일대를 말한다. 남쪽으로는 팔공산과 보현산과 주왕산 북쪽지방이기도 하다. 동쪽으로는 동해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상주·선산과 맞보고 있다. 여기에 안동 문화권이나 생활권이 형성된 것은 고려때 안동도호부가 설치되면서 비롯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기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러한 안동지방의 역사를 조선초기부터 현대까지 통관한 것이 이 글이다.

조선시대는 다음같이 초기·중기·후기의 3시기로 나누고 그 다음의 오늘날까지의 역사는 구한말(근대화시대기)·독립운동기(식민지시기)·해방후 오늘날까지(현대)의 역사를 역시 3시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모두 6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리하다.

- ① 초기(1392-1494) ; 조선왕조 건국부터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법전을 완성한 성종까지의 기간이다.
- ② 중기(1495-1724) ; 사림정권의 등장이 시도되다가 희생된 사화(士禍)를 거쳐 끝내는 사림정권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성리학 보편주의가 확산된 기간이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연산조부터 숙종경종까지의 기간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초기와 중기를 안동의 역사에 적용할 때는 사림의 등장을 대표한 퇴계 이황(1501-1570)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초기, 이후를 중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③ 후기(1725-1863) ; 18세기의 사회변동과 더불어 정감록(鄭鑑錄) 처럼 새시대 대망론이 대두하고 새로운 개혁사상으로 실학이 일어난 영조·정조때부터 철종 말년(1863)까지라고 할 수 있다. 안동에서 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영조 4년(1728) 무신란부

터라고 하겠다.

- ④ 근대화 시도기(1864-1910); 동학이 발생하고 삼남민란이 일어나고 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실시되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친 1860년대부터를 말한다. 안동에서도 대원군의 남인 중용에 따라 많은 인원이 등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⑤ 독립운동기(1910-1945); 일본의 식민통치가 강행된 가운데 독립운동이 전개된 시기로 독립운동을 통하여 근대로 발돋움한 때였다.
- ⑥ 해방후의 현대사(1945-오늘);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내용을 말한다면 ㉠ 해방후의 혼란과 좌우익의 대립 ㉡ 6·25동란과 안동의 형세 ㉢ 4·19혁명과 안동의 민주화운동 ㉣ 오늘의 안동 등이 엮어질 내용이다. 그렇게 현대를 제외하고 보면 이 글은 1392년 조선왕조 개창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 약 550년간의 안동의 역사를 개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1. 조선전기의 안동과 안동지방

조선시대를 흔히 양반봉건사회라 하고 안동을 양반의 고장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양반이 역사를 주도한 고장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양반 봉건제도가 모범적으로 정착한 고장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반과 향리(중인)와 상민의 신분이 전형적으로 분화된 곳이 되어야 한다. 양반제의 성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²⁾ 안동만큼

1) 이 글은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와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협동연구 과제중의 하나로 연구 위촉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하와이대학 슐츠교수가 고려까지의 안동역사를 담당하였고 필자는 조선시대부터의 안동 역사를 맡았다. 쉬운 문투로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나 필자의 문장 능력이 따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

양반 세력이 분명한 고장도 흔하지 않다. 그리고 『牧民心書』의 지적대로 양반에 못지 않게 향리(아전)의 세력이 강한 곳이 안동이다. 그의 여세로 해방후까지도 향리의 후예가 국회의원을 거의 독점하는 등, 안동의 주인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향리는 행정 실무자로 오늘날 도청의 국과장과 시군의 과장급 관리이다. 그들은 실무에 밝고 세련된 생활인으로 국가 운영에서는 양반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안동 향리는 경상도 향리를 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업무의 대가인 임금도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것이 민주제도하에서는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봉건제하에서는 수탈을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향회처럼 자치 기능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부정부패의 폐단을 남겼다.³⁾ 그런데 행정 업무와 임금 수수관계로 주민과 향리가 자주 만나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성립하여 수령과 양반은 따돌림(왕따)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향리를 중심한 안동 향토색의 비중이 높아졌다. 양반과 향리에 못지 않은 세력이 상민이었다. 그들은 산업과 균역을 맡고 있었으므로 국가적으로는 기본 인력이었다. 평소에는 농업·공업·상업에 종사하면서 군포라고 해서 군비를 부담하고 전시에는 전투 인력으로 동원되었다.

2) 韓永愚, 「신분개편과 계층구조」 『우리의 역사』, 경세원, 1997, 243쪽.

李成茂, 「兩班層의 成立過程」 『朝鮮初期 兩班研究』, 일조각, 1980, 17쪽.

3) 아전의 수탈 폐습이 조선후기에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났고, 오늘날 행정기관의 부정부패로 남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양반·중인·상민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상호 연대를 이루고 있을 때는 봉건적 안정을 기할 수 있지만 정치질서나 행정기강이 문란하게 되면 연대가 무너져 혼란에 빠지고 만다.⁴⁾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은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도 밑에 고을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목부·군·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목사·부사·군수·현령(감)이 수령 7사(七事)로⁵⁾ 알려진 행정·사법·군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안동은 8도 가운데 경상도에 속한 대도호부로서 정3품의 부사가 다스리고 있었다. 관리는 영의정(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정3품은 제5등급이다. 이웃 고을의 현감이 종6품의 제12등급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는 다음의 <구역표>를 보고 짐작하듯이 지금의 안동시 크기보다 약간 더 컸다.⁶⁾

-
- 4) 신분제를 설명할 때 文錫 같은 학자는 그의 『朝鮮歷史』에서 왕족·관료(양반과 중인)·상민·천민으로 구분하면서 양반과 중인(향리)을 묶어 지배층이라는 뜻에서 하나의 신분으로 보지만 안동의 향리를 보면 독자성이 강해 역시 별도의 신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2쇄), 나남출판, 2000, 340쪽).
 - 5) 「守令七事」란 수령의 주요업무 7가지를 말하는데 ① 농업과 잡업을 성하게 하는 農蠶盛 ② 인구를 관할 증대시키는 戶口增 ③ 교육을 일으키는 學校興 ④ 국방을 튼튼히 하는 軍政修 ⑤ 조세와 부역을 고르게 관할하는 賦役均 ⑥ 사법을 신속하고 공명하게 처리하는 詞訟簡 ⑦ 관리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관리를 다스리는 일인 姦猾息을 일컬었다(『經國大典』, 권1, 吏典 考課;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본(1985), 122쪽).
 - 6) 안동대도호부를 지금의 안동시와 비교하면 안동댐의 호수가 있는 방향의 예안현(선성현이라고도 함)이 독립해 있었으므로 그 지역은 제외하고, 지금의 예천군의 감천면과 봉화군의 내성면·춘양면·계산면을 합친 크기였다. 대도호부에는 외곽으로 8개의 속현과 2개부곡(部曲)이 있었다. 속현은 임하현·풍산현·일직현·길안현과 현재 예천군 땅인 감천현, 봉화군 땅인 내성현·춘양현·계산현이다. 부곡은 북쪽 변두리의 소천과 개단부곡을 말한다. 이것을 보면 안동대도호부는 현재의 안동시 보다 약간 넓은 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대도호부의 행정구역과 군사관할 구역표>

구 분	도 호 부	군	현	속 현	부 곡
행정관할 (속 현)				임하길안 일직·풍산 감천·내성· 춘양재산	소천개단
군사관할 (진 관)	영해·청송· 순흥	예천·풍기· 영천(영주)	영덕·의성· 예안·봉화 용궁·비안 군위·의흥 진보·영양		

<참고> ; 『경국대전』을 따랐는데 순흥·의흥·영양은 설치시기나 변화가 일정치 않아 별도 자료를 참고했다.

목·부·군·현의 행정과 사법은 왕명에 따라 목사·부사·군수·현령 또는 현감이 독자적으로 관장하였지만 군사관계는 진관(鎭管)이라고 하는 상하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진관은 각도에 지금의 사단장과 같은 병마절도사가 있고 그 밑에 지방별로 연대장이나 대대장과 같은 병마첨절제사가 있어 그는 부·군·현의 중대 또는 소대 병력을 통할하였다. 안동대도호부사는 병마첨절제사를 겸하여 근방의 부·군·현의 군사관계를 관할하고 있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송과 순흥과 영해도호부, 예천과 영천(영주)과 풍기군, 영덕·의성(현령)과 예안·용궁·봉화·진보·비안·군위·의흥(현감) 등의 수령들은 군사문제에서는 안동부사의 지휘를 받았다. 속종때 영양이 영해부에서 독립하여 현을 두자 영양도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안동에는 군포의 납부를 위하여 이웃 부·군·현의 관리가 자주 출입하였고, 전시가 되면 장정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와 같은 군사중심지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였으므로 경제생활이나 문화적으로도 중심지로 성장해 갔다. 이와 같이 진관체제에 의하여 안동지방, 안동문화권, 안동생활권 형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안동이 북부지역의 중심지 구실을 했던 것은 조선시대 예학을 관장하던 향교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안동 향교의 교수는 이웃의 예안이나 봉화영양영덕현감과 동급인 종6품이었는데 그 외의 지역엔 종9품의 훈도를 배치하였다.⁷⁾ 그러므로 안동향교는 중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했고 그 외 지역에선 초등교육의 수준을 면하지 못했다. 특히 안동 향교에는 조선초기부터 우수한 실력자를 배치하여⁸⁾ 안동은 군사 뿐만 아니라 교육으로도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⁹⁾ 그 위에 여말선초부터 안동지방에서 대학자가 속출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들이 승상한 유학은 경국제민을 위한 실천적 학문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에 참여하여 식견을 펴는 학자들이 많았다.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安珦; 1243-1306)을 비롯하여 우탁(禹倬; 1263-1342) 권보(權溥; 1262-1346) 이색(李穡; 1328-1396) 정도전(鄭道傳; 1337-1398) 권근(權近; 1352-1409) 등이 여말선초에 안동 또는 안동지방 출신 성리학자이다.

그러한 안동에는 조선초기부터 유향소(留鄕所)가 설치되어 향회(鄕會)가 발달하면서 성리학의 도덕적 향풍을 일으켰다.¹⁰⁾ 그것은 안동 양반의¹¹⁾ 자치활동이 선구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경상도에 종6품 教授가 12명, 종9품 訓導가 55명 배치되었다(위의 책, 『경국대전』 86쪽).

8) 조선 초기인 세조때 서울의 남부학당의 훈도 孫次綿을 안동향교에 배치하여 남부학당 학생들의 유입운동이 있기도 했다(『世祖實錄』, 권13, 세조4년 7월 乙未條).

9) 金晷鍾, 「중세의 사회와 문화」 『安東市史』1, 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167쪽.

10) 李樹健, 『경상북도사』 상권, 696쪽 및 金晷鍾, 앞의 글, 175쪽.

11) 兩班은 보기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다. 양반 족속이란 뜻으로 班族, 선비 족속의 뜻인 士

그때의 향규(鄕規)를 보면 안동 유림이 지향하던 도덕주의적 사회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안동지방에 봉건적 지배구조가 비교적 빨리 정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찍부터 안동 사족이 향안(鄕案)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¹²⁾ 그러한 향규를 보면, 안동향규가 총 22개항이고¹³⁾ 예안향규는 총 37개항이다.¹⁴⁾ 그것을 유별로 나누면 가정 윤리규정이 5개항(12), 사회 질서 규정이 6개항(7), 양반 사족의 규정이 6개항(6), 지방관 관계 규정이 2개항(7)인데(괄호 안의 숫자는 예안 향규의 통계임) 예안에는 집회 규정 5개항이 별도로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교의 실천윤리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중기에 유성룡(柳成龍)이 개정한 안동의 신향규와 비교해 보면 그들이 바라던 안동사회의 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후술).

향규를 향약이라고도 말한다. 향약이라면 유향소나 향회가 아닌 문중 향약이나 마을의 동규를 일컫는 경우도 많다. 마을에는 향약 모임이 아닌 이동계도 있다. 이동계는 조선후기에 크게 발달했는데, 상포계·보계(수리계)처럼 구체적인 생활 보험과 같은 것이 많았다. 계에는 학계도 있었는데 지금의 동창회나 장학회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향약과 이동계와 장학계가 긍정 부정간에 조선시대 사회조직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회조직이 조선왕조의 이념인 유교와 결합하여 유교 도덕주의를 확산시켜 유교 공동체를 성장시켰다. 공동체의 발달은 향규가 아니더라도 행정 단위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族, 사족의 무리라는 뜻인 士林, 유학 선비라는 뜻에서 儒生, 그의 무리라는 뜻인 儒林 등의 호칭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섞어서 사용한다.

12) 鄭經世(1563-1633), 『愚伏先生文集』 권15, 尙州鄕射堂 諸名錄書.

13) 權紀, 『永嘉志』(필사본, 1608); 안동문화원 영인본, 1993, 138쪽(鄕射堂)에 자세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14) 『國譯 宣城誌』, 1993, 57-58쪽에 退溪 李滉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禮安縣 約條가 게재되어 있는데 ()안의 숫자가 예안 향약의 집계이다.

있었다. 행정 단위는 연좌 또는 연대책임의 단위이기도 했다. 가령 안동에서 선조 9년에 어미를 죽인 패륜아가 있어 연대 책임을 물어 안동대도호부를 5년간 현으로 강등시킨 때가 있었고, 정조1년에도 행정을 문란하게 만든 사례가 있어 10년간 현으로 강등시킨 바가 있었다.¹⁵⁾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 연이어 향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도덕의 문란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것이 후일 연좌제로 남게 되어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했지만 조선시대 향촌의 공동체 발달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안동이 몇 번의 현으로 강등된 적이 있기는 해도 조선 시대를 통하여 대도호부로 존속했다. 1895년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안동은 관찰사가 다스리는 안동부가 되었다. 이때 안동관찰부 산하의 각 군은 16개 군으로 안동대도호부때 군사관계를 통할한 진관 지역과 비슷했다. 안동관찰부는 1년간에 불과하고 이듬해에 전국을 13도로 나눌 때 안동군이 되었다. 안동군이라고 해도 구역은 대도호부때와 같이 넓었다. 그때 오늘날과 같이 감천현은 예천군으로, 내성·춘양·재산현은 봉화군으로 갔다. 1914년에는 명사의 고장인 예안군이 역시 명사의 고장인 안동군에 편입되어¹⁶⁾ 안동군은 그야말로 명실 공히 명사의 고장, 유학의 고장이 되었다. 1963년에 안동군과 안동시로 분리하였다가 1995년에 통합하여 지금의 안동시가 되었다. 오늘날도 안동시를 중심으로 유교문화권이라 하여 경북 북부지역 시군들이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창조물이

15) 鄭源鎬, 『嶠南誌』, 慶文堂, 1937; 昨辰社 영인본 제1권, 1985, 495쪽.

16) 예안군은 역동서원(易東書院)과 도산서원(陶山書院)이 있고 우탁(禹倬, 易東)·이현보(李賢輔, 龜巖)·이황(李滉, 退溪)·김부필(金富弼, 後彫堂)·조목(趙穆, 月川)·금난수(琴爾秀, 惺齋)·이덕홍(李德弘, 良齋) 등의 명사를 배출한 고장인데 여강(廬江)서원과 삼계(三溪)서원과 명산(屏山)서원이 있고, 권근(權近, 陽村)·김진(金鎭, 靑溪)·유성룡(柳成龍, 西厓)·김성일(金誠一, 鶴峰)·장흥효(張興孝, 敬堂)·이상경(李象靖, 大山)·유치명(柳致明, 定齋) 등을 배출한 역시 명사의 고장인 안동군에 편입되었다.

아니라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연대를 심화시킨 유교는 서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안동지방에는 어디보다 먼저 서원이 세워진 고을이어서 유교의 전파도 빨랐다. 1608년에 편찬한 『영가지(永嘉志)』에 등재된 안동부만의 서원이 여강서원, 병산서원과 삼계서원이 있었고, 4개 정사(精舍) 외에 서당이 15개가 있었다. 그때 영양에 영산서당 1개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안동에는 유학이 조직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퇴계 이황(1501-1570)과 309명에 이르는 문도의 영향이 컸다.¹⁷⁾ 퇴계는 50세 되던 1550년에 고향에 한서암(寒栖菴)을 짓고 60세에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준공하고 전국에서 운집한 문도를 길렀다. 그리하여 안동은 실천 유학을 일컫는 도학의 고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309명의 문도 가운데 안동부와 예안현 출신이 102명이나 되었다.¹⁸⁾ 예안향약도 이현보가 만든 약조를 퇴계가 보완하여 직접 초안하여 후세에 모범이 되게 하였다.¹⁹⁾ 그러니까 예안-안동이 퇴계학의 고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퇴계-학

17) 1570년에 타계한 퇴계 묘소의 비문은 奇大升(1527-장성)이 맡았고, 1600년에 간행한 퇴계문집을 편집한 제자는 다음과 같다(서정문,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3, 219-220쪽에 의거함. 연도는 출생년도, 지명은 세가지임).

金富倫 (1521-예안) 趙 穆 (1524-예안) 金就礪 (1526-안산) 鄭 琢 (1526-예천)

琴應煖 (1526-예안) 琴蘭秀 (1530-예안) 金誠一 (1538-안동) 柳雲龍 (1539-안동)

琴應燾 (1540-예안) 李德弘 (1541-예안) 柳成龍 (1542-안동) 禹性傳 (1542-서울)

南致利 (1543-안동) 金澤龍 (1547-예안)

18)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과 學統弟子的 範圍」 『韓國의 哲學』25,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7.

19) 퇴계가 만든 예안향약 초안에는 당시 봉건 질서에 따라 신분과 벼슬과 일족인 경우에는 향렬에 따른 서열을 무시하고 연령 순서만 존중했다고 한다. 앓을 때도 연령 순으로 앓도록 했다. 예안향약을 보면(『宣城誌』 「鄉射堂約條」 참조)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퇴계의 인간주의를 말할 때 이것과 둘째 며느리를 제가시킨 것을 들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

權五鳳,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1997, 219쪽.

李佑成, 『陶山書院』, 한길사, 2001, 326쪽.

봉-경당을 이어 퇴계학을 일으킨 이휘일(李徽逸) 이현일(李玄逸) 형제가 안동에서 동쪽으로 70킬로미터 거리의 영해 인량리에 살았다. 그러므로 진관에서 안동부의 지시를 받던 영해를 문화적으로 안동권에 들게 한 것이다. 서쪽으로는 상주가 고대 가야문화의 영향이나 조선시대의 진관을 보면 안동과는 별도로 독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상주 우산리의 정경세(鄭經世)가 퇴계-서애를 이은 또 한갈래의 퇴계학을 일으킴으로써 학문적으로는 안동문화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교통권과 문화권에 따라 통혼권이 성립하는 등 인사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안동생활권이 형성되었다.

생활권의 범위는 지리와 지형의 영향을 받았다. 태백산과 소백산의 양백대간 사이의 산지와 약간의 평야지대가 안동지방이었다. 남쪽으로는 보현산과 팔공산 북쪽 지대가 된다. 그래서 팔공산 북쪽의 군위군 부계가 거리로 보면 대구가 가까웠지만, 진관은 안동 산하에 있었고, 그곳 부계 홍씨문중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학술 문화도 안동권에 속했다. 생활권은 5일장을 중심한 장시권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²⁰⁾ 오늘날 안동의 고등어와 굴젓이 유명한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데 내륙에 위치한 안동이 해산물을 특산품으로 생산한다는 것이 바로 장시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안동지방에는 독특한 사투리가 있어 방언권도 형성되어 있다. 방언권의 형성은 오랫동안 생활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해와 영덕지방의 해변 사투리가 있고, 군위의흥비안 등지는 상주나 대구 방언의 영향이 있어 중첩되기는 한다. 의문을 나타내는 북부의 “그랬니껴?” 해변의 “그랬니껴?” 대구와 가까운 남부의 “그

20) 善生永助, 『朝鮮의 市場』, 조선총독부, 1924. 및 文定昌, 『朝鮮의 市場』, 일본평론사, 1941. 참조.

했녕교?”등으로 서로 다르듯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크게 보면 비슷한 사투리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풍속도 가령 결혼 때 혼수를 남녀가 비등하게 분담하는 따위는 전국적으로 흔하지 않다. 그래서 타지방과 혼인할 때 안동지방의 신랑은 혼수를 가지고 가므로 환영을 받았지만, 신부는 혼수가 적어 눈물의 일화를 남기고 있다. 남남북녀라는 말에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첩하여 안동지방, 안동문화권, 안동생활권이 형성된 것이다. 고등어를 잡는 동해안이나 진관의 군사영역인 보현산과 팔공산이 7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다. 퇴계학을 일으킨 영해인량리나 상주 우산리가 동서로 각각 7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고, 또 남쪽으로 군위에서 퇴계학을 일으킨 부계리(한밤)가 역시 비슷한 거리에 있다고 보면, 안동지방은 안동을 중심한 근방 70킬로미터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초기부터 안동지방의 경제생활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산지가 많아 경지 면적이 좁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근검절약을 요구하는 규모 생활이 자리잡았다. 안동지방에는 “만석군”이라는 호칭이 없을 정도로 대지주는 없었다. 안동지방에서는 “천석군”이라면 부호를 의미했는데 전국 수준에서 보면 부호에 들지 못하였다. 그와 같이 안동지방은 토지는 적은데 양반 지주수는 많기 때문에 농지 소유구조가 영세하여 근검 절약해야 생존과 관혼상제 등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한 안동의 근검절약 생활이 세종 10(1428)년부터 특별히 주목받더니²¹⁾ 성종4(1473)년에는 『안동풍속(安東風俗)』이라는 책자를 간행하여 근검절약을 전국적

21) 『世宗實錄』 권40, 세종10년 4월 임진조.

으로 본보게 하였다.²²⁾

안동의 산물은 은이나 학가산 밑에서 생산된 철과 같은 광산물이 있었다고 하나, 영해 영덕의 동해안 해산물을 제외하면 농산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농산물로는 풍기·풍산·군위·의성·영해평야의 쌀외에 일반적으로는 보리였다. 가을보리는 겨울에 동해를 입어 권장할 바가 못되었다. 따라서 월동하지 않는 봄보리 경작이 광범하게 실시되었다. 봄보리는 갈보리에 비하여 생산량이 많지 않다. 봄에 파종하므로 봄가뭄이 심한 탓으로 흉년이 자주 들고 보릿고개 이야기가 유달리 잦은 고장이다. 그와 같이 안동지방의 농업 생산력은 낮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특별한 음식문화가 없듯이 생활은 빈한한 편이었다. 안동의 명문가에서 부호와의 결혼인 식혼(食婚)을 좋아하고 멀리 남도지방의 토호와 통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경제생활 속에서도 조선후기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의 이야기처럼 궁벽한 마을에서도 집집마다 책 읽는 소리 그치지 않아²³⁾ 학문은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의식주가 풍부해야 유리한 예술의 발달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2. 성리학을 꽃피운 조선중기의 안동

조선중기는 사림정권의 등장이 시도된 연산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림의 성장이 좌절된 모습이 사화로 나타났다.²⁴⁾ 중종때 조광조가

22) 『成宗實錄』 권28, 성종4년 3월 병신조.

23) 李重煥(李翼成역), 『擇里志』, 을유문화사, 1971, 81쪽 및 301쪽.

24) 李秉然, 「戊午甲子土禍와 士林派의 動向」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일조각, 1999, 18쪽.

훈구세력을 거세하고 집권을 시도하다가 1519년에 반격을 받아(기묘사화) 실패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선조 때부터 사림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의 대표가 조광조(정암)·서경덕(화담)·이언적(회재)·이황(퇴계)·조식(남명)·성혼(우계)·이이(율곡) 등이었다. 안동지방에서는 권발·이현보·이황·유성룡·김성일·정경세·김상헌·이현일·김방걸 등이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였다.

사림 정권은 성립초부터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만나 사회경제가 황폐하여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권력구조를 강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왜란을 당하자 성리학을 공부하던 전국의 유생(선비)들이 충군 의리를 외치며 의병으로 봉기하여 성리학의 명분론을 고조시켰다. 아울러 성리학의 발원국인 명나라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성리학 확산의 힘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임금이 청나라에 항복하는 모욕을 당하고(1636) 이어 1644년에 명나라가 청에게 멸망하자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조선에서나마 성리학을 지키고 부흥시키자는 열기가 불타 올랐다. 그것이 효종때의 북벌론이었다. 성리학 십자군전쟁을 계획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중기에는 성리학 보편주의 의식이 제고되었다. 흡사 서양 중세에 기독교 보편주의가 성립했던 경우와 비슷한 역사성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안동지방에서도 의병이 크게 일어났다. 의병이란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난 민병을 말한다. 안동지방에서는 안동출신 유성룡이 영의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고, 난중의 경상감사를 맡은 김성일이 경상우도나 전라도 의병들과 함께 적중의 진주성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므로 안동은 남다른 처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지금의 영양·영해·영덕을 아우른 영해부의 의병은 대구 남쪽으로 나

아가 팔공산 회맹에 참가하고²⁵⁾ 곽재우(郭再祐) 의병에 합류하여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했다.²⁶⁾ 권전(權詮)은 용궁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풍산현 우령골의 李洪仁은 노구를 무릅쓰고 의병을 일으켜 예천 방면에서 침입하는 왜군과 싸우다가 구담전투에서 전사했다.²⁷⁾ 하회출신의 유종개(柳宗介)는 의병을 모아 태백산 일대에서 항전하다가 소천(부곡)전투에서 전사했다.²⁸⁾ 예안현 오천리의 김해(金垓)는 안동과 안동 남부지역의 의병을 규합하여 항전하다가 진중에서 순국하였다. 김해의 연합의병진용을 보면²⁹⁾ 대장; 김해, 부장; 이정백(李庭柏)·배용길(裴龍吉)외에 31명의 참모가 있고, 안동-예안내성·의상·군위·의흥·비안 등, 지역별 진영의 책임자가 있었다.³⁰⁾ 그리하여 367명의 상비군 의병진이 결성된 것이다. 그 외에도 앞에 소개한 유정의 『송호일기(松壕日記)』에 의하면 팔공산 회맹에 참가한 안동지방의 선비가 부지기수에 이른다.³¹⁾ 이러한 항전을 통하여 안동 선비들의 행동주의 유학은 더욱 고양되어 갔다.

-
- 25) 柳汀, 『松壕日記』; 『壬辰嶺南義兵史』, 嶺南忠義壇保存會, 2001, 96쪽.
 26) 『火旺同苦錄』에서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하여 그해 7월 21일에 화왕산성 성중에 있던 영해부(영해영덕영양) 출신 사족 인물(용사제현)은 59명이었다고 한다(『龍蛇譜』 『盈德郡誌』, 영덕군, 1981, 597-599쪽).
 27) 宋志香, 『安東嶺南義兵史』, 대성문화사, 1983, 616-617쪽.
 28) 이원길, 「류종개」 『안동의 인물-安東市史5』, 1999, 208-209쪽.
 29)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金 垓, 『鄉兵日記(1592. 4. 14-1593. 6. 19)』,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料叢書43』(上), 2000.
 金龜鉉, 「壬辰倭亂 중의 安東義兵」 『향토경북』, 창간호, 1987.
 金俊植, 『君子마을과 崇遠閣』, 광산김씨 예안파문중, 1999.
 盧永九,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垓의 의병활동」 『안동문화권 전통문화학술대회문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0.
 30) 지역별로 안동은 유복기(柳復起)·김륜(金淪)·심지(沈智)가 맡고, 예안현은 김택룡(金澤龍)·내성현은 남정순(南庭荀)·의성현은 김사원(金士元)·**신홍도(申弘道)**·군위현은 이영용(李榮勇)·장사진(張士珍)·의흥현은 강충립(康忠立)·박윤문(朴潤文)·이호인(李好仁)·홍경승(洪慶承)·비안현은 조단(趙端)이 맡았다.
 31) 앞의 책, 『壬辰嶺南義兵史』, 96-98쪽.

이와같이 의병진의 자발적 결성이 가능했던 것은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의 충효 의리론에 있었지만 사회사적으로는 동계나 향약과 유향소의 향규를 통해 보듯이 마을과 지방의 공동체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안동의 향규는 조선중기에 유성룡이 만든 신규약 10조로 재정비하였다.³²⁾ ① 좌수를 비롯한 향회 임원을 중시한다(重鄉任). ② 집회의 의식과 질서를 엄격히 지킨다(嚴會儀). ③ 윤리 규범을 중히 여긴다(厚彝倫). ④ 향안을 바르게 관리한다(正鄉案). ⑤ 예의와 풍속을 밝게 한다(明禮俗). ⑥ 나이 많은 어른을 존경한다(尊高年). ⑦ 사리사욕을 탐하는 등의 잘못을 금한다(禁非違). ⑧ 향리의 횡패를 막는다(治吏胥). ⑨ 부역을 고르게 실시 부담한다(均徭役). ⑩ 아희들을 가르쳐 키운다(訓童蒙). 10개조의 세부사항은 생략하지만 그것까지 검토하면 구규약에 비하여 정연하면서 윤리 기강과 교육이 강조된 내용이다. 이것은 향촌사회의 자치 기능이 향상되고 성리학적 도덕주의가 보편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향구나 마을의 동규인 향약은 신분제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도덕주의나 자치 기능이란 것도 지배구조를 뛰어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민간조직처럼 평등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향촌사회의 조직적 기능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은 뜻 있게 보아야 한다.³³⁾ 그리하여 국가주의 의식도 태동한 것이다. 그때의 국가의식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과 유착되어 있었다. 그 의식은 서양의 전제군주처럼 절대군주에 대한 충성의식 같은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국왕은 법의 구속을 받았다. 그것을 거부하면 연산군처럼 「반정(反正)」이란 이름으로 추방되었다. 서양의 폭군

32) 權紀, 『永嘉志』, 필사본, 1608(안동문화원, 영인본, 1993, 138쪽 및 555-559쪽)

33) 정진영, 「조선전기 안동부제지사족의 향촌지배」 『朝鮮時代鄉村社會史』, 한길사, 1997, 45쪽.

은 하느님을 거역한 군왕인데 조선의 폭군은 법을 거역한 군왕이었다. 충성스런 신하일수록 “상감마마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통촉하십시오”라고 법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그 법이란 어떤 법인가? 그것이 유교 윤리의 규범이요 성리학의 도덕률인 것이다. 그러한 도덕률이 군신관계, 사회관계, 가족관계를 지배한 조선시대였고, 그것이 절정에 이른 것이 조선 중기였다. 조선중기에 꽃핀 봉당 당쟁이란 것도 그러한 윤리와 도덕을 정치와 관련시킨 가운데 일어난 논쟁을 말했다. 무인사회라면 칼로 싸운 당쟁이었겠지만, 조선은 문인사회였으므로 글의 논쟁으로 싸웠다. 때로는 윤리를 빙자한 정치논쟁으로 전개되었고, 때로는 정치를 빙자한 윤리논쟁을 전개하다가 서로 생사를 걸기도 했다. 그러한 성격이 전형적으로 존재한 지역이 안동사회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러한 윤리 질서를 발전시킨 안동이었으므로 이퇴계를 비롯하여 국가적 인물을 무수히 배출하였다. 그들은 봉당 정쟁에서 동인당(東人黨)의 다수파인 남인당(南人黨)에서 활약하였다. 처음에는 예안출신 조목(趙穆)처럼 북인당과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³⁴⁾ 안동 소산출신 김상헌(金尙憲)에서 김좌근(金左根)에 이르는 노론당 대표도 있었고, 용궁출신 정광필(鄭光弼)에서 정원용(鄭元容)에 이르는 소론당 대표도 있었다. 그런데 안동 현지에서는 소수의 문증을 제외하면 퇴계문인의 유성룡과 김성일의 정치 노선을 따라 남인당이 우세하여 안동지방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남인의 고장이 되었다. 조선후기에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를 강행할 때도 안동 김씨가 나라는 세도해도

34) 李樹健, 「西厓 柳成龍의 學問과 學脈」 『韓國의 哲學』2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5, 9-11쪽

鄭萬祚, 「月川 趙穆의 生涯와 學問」 『韓國의 哲學』24, 1996, 7-10쪽.

李尙賢, 「大北政權의 月川 從享支援」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8, 37쪽.

그들의 고향인 안동은 세도하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안동은 중앙 정계와 달리 야당인 남인당이 우세했다.

붕당 정쟁을 줄여서 당쟁이라고도 말하는데 선조 때에 동인당과 서인당의 붕당으로 시작하여 동인당은 남인당과 북인당으로, 서인당은 노론당과 소론당으로 분화된 것을 ‘4색 당파’라고 한다. 조선중기에는 4색당이 정치 논쟁을 벌이고 또 집권 경쟁을 벌이며 엇치락뒤치락하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노론 정권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당쟁을 조선의 분파주의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국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분파주의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붕당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된 것도 간과해서 안 된다. 붕당이 공론을 일으켜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 또 경쟁의 기능도 발휘하고 있었다고 보면 조선왕조의 발전 저력이 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조선조의 공론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에 의한 삼사공론(三司公論)이나 성균관 유생의 공론 같은 공식화된 경우도 있고, 지방의 향회(鄉會)나 서원에 모여 공론을 일으키는 재야 공론도 있었다. 그러한 공론이 당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지도 역량에 따라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었다.³⁵⁾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당쟁을 봉쇄한 것이 역으로 국가를 침체에 빠뜨린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당쟁이 가장 치열하던 숙종때만 해도 언론에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둘러싼 권모술수만을 소개하여 당쟁으로 얼룩지다가 끝난 시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경제가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화폐가 나와 전

35) 李泰鎭,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 『朝鮮時代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13쪽.
 _____, 「儒敎社會의 운영구조와 政治發達」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129쪽.
 당쟁을 긍정적으로 본 최초의 역사학자는 安廓으로 그의 『朝鮮文明史』(1922)에서 통쾌하게 서술되어 있다.

국으로 통용됐다는 것만 보아도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³⁶⁾

여기에서 당쟁문제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므로 안동지방과 관련이 깊은 사례로 우율종사(牛栗從祀) 반대운동과 기해예송(己亥禮訟)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다음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득세했다가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이 몰락할 때의 주목할 사항 한 두 가지만 보기로 한다.

우율종사 반대운동이란 우계 성혼(成渾)과 율곡 이이(李珣)를 성균관 문묘에 배향하려고 서인측에서 추진하는 데 대하여 남인측에서 반대했던 것을 말한다. 처음에 인조(1623-1649)때에 거론되자 임금이 듣지 않아 봉쇄되었다가 효종1년(1650)에 재론되었다. 남인측은 이퇴계종사로 끝내자는 현상고수를 주장하였고 서인측은 종사 인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반대운동은 처음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다가 서인측의 의도가 송시열 자신의 사후 종사를 피한 음모라고 전망하면서 반대운동은 격양되었다. 수곡리의 유직(柳稷; 1602-1662)을 비롯한 8백 영남 유생이 반대운동에 앞장을 섰다. 그리하여 우율종사를 막았다. 그러나 30년을 지나 당쟁이 격화한 숙종 8년(1682)에 이르러 중

36) 숙종조에 일본과 중국간의 중개무역과 풍기에서 많이 생산된 인삼 수출을 통하여 부를 증대하였고,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농촌질서를 잡기에 노력하였다. 그때의 토지대장이 『강희양안(康熙量案)』이다. 그리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상품 유통구조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종때 만든 화폐인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중단없이 조선시대 끝까지 통용되었던 것이다. 서울의 성곽도 그대에 새로 수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서원 향사가 7백개 정도인데 거의 반수는 숙종때에 세운 것이라는 점으로도 알수 있다(鄭萬祚,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142-143쪽). 서원 남설이 폐단이었지만 그것이 시골에 이르기까지 지방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탈체제를 고려하더라도 농촌까지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경제발전을 고려하면 당쟁도 정치를 활성화시킨 발전적이고 긍정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朴光用, 「蕩平論의 전개와 政局의 變化」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289쪽)

사를 실현하게 되었다.³⁷⁾ 이와같이 사람의 공적문제로 논쟁하다가 언론의 정도를 이탈한 당쟁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송문제에 이르면 그러한 폐단이 강하게 노출되었다. 기해년(1659)에 효종이 작고했는데 그가 소현세자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므로 효종을 장남으로 예우하는냐 차남으로 예우하느냐를 놓고 논쟁한 것이 기해예송(己亥禮訟)이다.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따라 그의 어머니 조대비의 상복이 달라지는 것이다. 효종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10년을 두고 논쟁하였다. 그것이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나타났던 것은 남인과 가까웠던 소현세자와 서인과 가까웠던 효종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식은 예복의 문제였으나 실체는 왕위계승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거기에 하회의 유세철(柳世哲; 1627-1681)이 현종7년(1666) 영남 70읍의 유생 1천 1백 명을 대표하여 남인당을 지원하고 나섰다.³⁸⁾ 겉으로는 예송이었으나 일종의 정치 논쟁이고 정통성 문제였으므로 여간 예민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안동 유림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공론을 일으키고 공론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특징이었다. 때문에 그때의 선비들은 언로가 막히면 목숨을 걸고 임금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래야 양반 선비로 살아갈 맛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조선왕조를 왕권과 귀족(양반)의 권력 경쟁의 관계에서 보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공론이 당쟁과 유착하여 집권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집권경쟁은 숙종때 서인당과 남인당 사이에 나타났고, 남인이 실각한 다음에는 서인이 노론당과 소론당으로 분열하여 노론

37) 牛栗從祀는 현종때 결정되지 못하고 서인정권이 견고해진 숙종8년(1682)에 이르러 실현했다가 남인이 집권한 숙종 15년(1689) 己巳換局으로 종사가 취소됐다. 그후 서인(노론)이 다시 집권에 성공한 숙종 20년 甲戌換局으로 종사를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8) 姜周鎭, 「嶺儒上疏와 西人의 分裂」『李朝黨爭史研究』, 서울대 출판부, 1971, 205쪽.

과 소론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안동 인사가 관련 된 사례 한가지를 소개해 둔다.

정권교체가 빈번했던 숙종(재위; 1675-1720)때의 이야기이다. 1689년에는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여 안동지방 남인들도 정계 등단의 기회를 맞았다. 그때 갈암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남인당의 중진으로 부상하였다. 이현일이 기사환국이 있던 1689년에 이조참의-예조참판-대사헌-이조판서로 오를 때 노론의 영수 김수항-송시열은 죽임을 당하고, 성혼·이이가 문묘에서 축출 당하고, 인현왕후 민비가 폐비되는 등 노론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현일은 노론이 겨냥한 극단적 정적이 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그도 실각하고 이어 역적으로 몰려 1908년 신원(복권)되기까지 그의 후손들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보복을 당했다. 이현일이 죽은 후에 잠시 인산서원(仁山書院)에 향사된 바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다.³⁹⁾

그러한 변화를 노론은 대지주 대자산가나 특전 상인과 결탁한 인물이 많아 상업에 눈을 뜨고, 소론은 중소지주와 상인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임기응변이나 현실 적응능력이 키워졌는데 남인은 농업을 중시하며 개혁을 이야기해도 농업개혁에 머문 경향이 있어 새로운 변화의 대처능력이 뒤졌다고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의견도 있다.⁴⁰⁾ 농업개혁에 머문다면 현실보다는 이상주의에 기울 가능성이 많다. 이상주의에 기울었기 때문에 후일 안동지방 사림사회에서 사회

39) 仁山書院은 영해 인량리에 있었는데 갈암의 형 이휘일(李徽逸; 1619-1672)의 학덕을 기념하여 1696년에 완공한 것이다. 1704년 이현일이 작고한 후 숙종 44년(1718)에 이현일도 추가로 배향했다. 그후 노론의 남인에 대한 탄핵이 강화되는 가운데 공격의 화살이 이현일에게 몰려 영조 13년(1737)에 서원까지 훼손당하고 말았다.

40) 鄭奭鍾, 「肅宗代 甲戌換局과 정변참여 계층분석」『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168-170쪽.

주의자가 많이 배출된지도 모른다. 아무튼 안동지방은 1694년 갑술환국을 고비로 벼슬길은 멀어져 갔다. 결국 선비의 길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선비의 길을 벼슬을 주어도 받지 않은 「징사(徵士)」 또는 벼슬을 외면하며 사는 「처사(處士)」라고 자칭 자위했다. 향약을 지키고 글을 읽으며 공통된 운명의 문중간의 통혼으로 선비의 지위를 지켜갔다. 그러므로 향약문집·통혼의 유지는 선비의 명분을 지키는 불가결의 요소였다. 문집의 내용을 보면 창작성이 없는데도 선비의 보상심리를 충족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간행한 것이 적지 않았다. 오늘날 어떤 교수들이 자비 출판물로 학문의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점점 몰락해 갔다. 벼슬길에 들지 못한 채 사회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잔반(殘班)이라고 하지만, 안동지방에는 중기부터 잔반 경지에 이른 사족이 증가하였다. 그러자니 양반 토지에 생애를 의지하고 있던 상민의 처지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초근목피가 일상식이 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끝내면서 상민들의 마음은 나라와 임금과 양반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나아가 싸웠으나 그의 공로는 양반이 독점하였다. 아무리 뛰어난 공적을 남기고 전사한 경우라도 정각은 양반만을 위해 세웠다. 거기에 전란으로 말미암은 황폐한 토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탈만 강화한 양반들이었다. 상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동경했다. 그것이 임진왜란후부터 확산된 진인(眞人)사상이었다. 숙종때 장길산의 난도 그것이었다. 상민이나 천민들이 진인 즉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며 일으킨 민란이 전국으로 퍼져갔다.⁴¹⁾

숙종 때에는 신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것도 사회 변동

41) 鄭夷鍾, 앞의 글 참조.

의 전주곡이었다. 그러한 사회 변동을 작품으로 묘사한 것이 『춘향전(春香傳)』이다. 사회변동을 희극적으로 풍자한 하회탈춤이나 안동지방에 널리 보급되고 있던 내방가사를 보아도 무너져 가는 기존질서를 안쓰럽게 노래한 것이 많았다. 신분질서의 변동은 유교의례가 공유되고 있던 단계에 이르러 하층자의 경제적 상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부유한 상민이 유교의례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분변동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때에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조선후기의 특징이다.

3. 조선후기에는 정치에서 밀리고

조선중기 숙종 때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보호색을 칠하거나 아니라도 생존의 방도를 찾기 마련이다. 그때 양반들은 나름의 봉건적 조직을 강화하였다. 족보 간행을 서두르며 문중조직이나 향약과 이동계와 장학계 같은 양반중심의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서민사회에서는 임진왜란 후 전국으로 확산된 진인(메시아) 강림설이 영조때에 이르러 정감록(鄭鑑錄) 사상으로 구체화되는 등, 혁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⁴²⁾

이러한 조선후기의 특징을 총괄해서 보면, 탕평책으로 다듬어진 노론정권의 확립, 사회경제의 탈중세적 변화(자본주의의 맹아), 그에 따른 개혁사상의 대두와 개혁(혁명)분위기의 조성, 중세 보편주의의 퇴조와 민족의식의 고양, 관혼상제를 중심한 유교의례의 공유와 확산, 서민문화의 다양한 발달, 안동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문중조직의 발

42) 우윤, 「鄭鑑錄과 東學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역사상 정치적 예언의 종합적 검토』, 震檀學會, 2001, 64쪽.

달이 주목되었다. 임금도 나라도 믿지 못하고 정당 정과도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있는 조직으로 등장한 것이 문중이었다. 그때의 문중은 오늘날의 가락 김씨나 신라 김씨처럼 범종친회 조직이 아니라 파종 친회 같은 소규모의 조직이었다. 안동에서 “권가가 권가 보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가라도 이해를 달리하면 문중을 나누었다. 신분이 다르면 일가라도 문중이 달랐다. 그것은 권씨 뿐만 아니라 안동 김씨나 의성 김씨나 풍산 유씨도 한가지였다. 그런 가운데 문중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조선후기 안동에서 나타난 문중 충돌의 대표적 사례인 병호시비라는 것도 조선후기 사회조직의 문중화가 빚은 현상인 것이다. 사회조직의 문중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호남지방에서는 향중서원이 문중서원으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⁴³⁾ 그것이 안동에서는 가학의 발달과 더불어⁴⁴⁾ 병호시비로 나타난 것이다.

43) 李海濬, 『朝鮮後期 門中書院研究』, 1993년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전남지방의 문중서원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44)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安秉杰 교수가 퇴계탄신 500주년기념 학술회의에서 「퇴계 이황의 학맥과 그의 반성」이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주^③에 퇴계학맥이 문중가학으로 전개된 것을 소개했다. 안동지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므로 여기에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문집이나 유고를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예안> 진성이씨(도산, 도산서원) : 이안도이수연이아순이가순이만각이만손이만안이만도이중철?

광산김씨(외내, 향현사, 낙천사) : 김부필김부와김부륵김기, 김해김령김시찬
영천이씨(부내, 원천, 분강서원, 오계서원) : 이증량이숙량이덕홍이사이상홍
봉화김씨(부포, 외내, 동계서원) : 김응훈김응협김단수김경금개금시술김서술

<안동> 풍산유씨(하회, 병산서원화천서원) : 유운룡유성룡유원자유세철유세명유후장유규
유이좌 (유진 후손은 상주조 참조)

의성김씨(내양, 검재, 호계서원임천서원) : 김극알김성알김용김시은김학배김성탁
김낙행김도행김대잔김홍락

풍산김씨(오미) : 김봉조김영조김응조

안동권씨(송야, 청성서원) : 권호문권덕수권심규

안동권씨(도촌, 도계서원) : 권의권위

안동권씨(가일, 시습재) : 권주권구권명우권준희

홍해배씨(도목) : 배삼악배용길

안동장씨(검재) : 장흥효

원주변씨(검재) : 변영창변중일변두간변규진

한산이씨(소호, 고산서원) : 이상정이광정이완이우이병원이이병운이돈우

그러한 문중 단위의 행동양식은 1728년 영조 4년의 이인좌의 난, 이른바 무신란(戊申亂) 때의 동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신란은 영조초에 김일경(金一鏡)을 비롯한 소론이 거세당하자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정(反正)을 표방하고 일으킨 반란이었다. 소론의 李麟佐가 청주에서 반란을 추진하자 청주의 남인인 고령 신씨가 호응하고 안음의 남인 정희량(鄭希亮) 등이 합세하였다. 때마침 정감록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또 사회경제의 변동과 함께 민란이 이어지고 있던 때였으므로 반란의 기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⁴⁵⁾

전주유씨(무실,박실,삼산, 기양리사) : 유승현·유정원·유도원·유장원·유취문·유치명·유치암·유정호·유지호

<봉화> 안동권씨(답실, 삼계서원) : 권동보·권두안·권두경·권만권·권정침

의성김씨(해저) : 김우광·김성구·김진동·김한동·김희탁·김희원

<영해> 재령이씨(인량, 영양 석보) : 이시명·이희알·이현알·이승알·이재이·만이·유원

<영양> 한양조씨(주실) : 조덕란·조술도·조성복·조연유·조승기

<의성> 안동김씨(사촌) : 김사원·김종탁·김종경·김종발

이주신씨(귀미, 읍성) : 신지재·신홍당·신달도·형재·신체인

영천이씨(산운) : 이광준·이민성·이민환·이희발

<예천> 청주정씨(삼강, 도정서원) : 정탁·정윤해·정윤목·정옥

예천권씨(죽립) : 권문해

함양박씨(금당실, 금곡서원) : 박정기·박손경·박기녕·박주중·박주대

<군위> 부림홍씨(대울) : 홍재겸·홍지수

<문경> 부림홍씨(영순, 근암서원) : 홍호·홍여하

안동권씨(산북, 근암서원) : 권상일

<상주> 진양정씨(우산, 도남서원) : 정경세·정도응·정종로·정상리

홍양이씨(청리) : 이진이·준이·원규

풍산유씨(우천) : 유진·유심춘·유후조·유주목·유응목·유도현

풍양조씨 : 조정조·악조·승수·조목수

<영천> 연일정씨(황계, 자양) : 정세아·정만양·정규양·정종기

<대구> 경주최씨(철계) : 최동갑·최동작·최홍원·최효술

<칠곡> 인동장씨(남산) : 장현광·장복추·장석산·장석영·장지연

광주이씨(석전) : 이윤우·이원정·이담·망이·만운

<성주> 의성김씨(사월, 청천서원) : 김우용·김창숙

청주정씨(수륜, 회연서원) : 정구

성주이씨(대포) : 이원조·이진상·이승희

45) 李鍾範, 「1728년 무신란의 성격」,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198쪽에 조사된 무신란 세력 분포는 가위 전국적이었다. 경중(서울)·과찬·여주·이천·용인·안성·양성·진주·원주·충주·청주·괴산·문경·상주·공주·해미는 진부안고부·남일·순창·안음·함천·하동으로 조사되고 있다(인물은 생략).

그때 정희량의 이종으로 상주출신의 김홍수(金弘壽)와 이인좌의 동생 이능좌(李能佐)의 교섭을 받고 권구(權渠)·유몽서(柳夢瑞)·황익재(黃翼再)·김민행(金敏行)을 비롯한 안동 인사가 호응했다고 하며⁴⁶⁾ 낙동강 동쪽을 가리키는 경상좌도 일대에서 호응자가 많았다.

예천의 이윤사(李潤師), 상주의 황침(黃沈), 선산의 이도(李燾), 영덕의 신필회(申弼誨)외에도 황수담(黃壽聃)등이 그들의 대표자였다.⁴⁷⁾ 성공하면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때의 공신처럼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정한대로 영조 4년 3월 12일 기병하였다. 약속한대로 안동 사람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뜻밖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⁴⁸⁾ 문중간의 사전회의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안동 사람은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몰렸다.⁴⁹⁾ 오히려 무신란을 토벌하자는 의병이 조직되었다.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에 의하면 유승현(柳升鉉)이 의병대장이었다. 그리고 권만(權萬)·이장(李槩)·김경침(金景沈)·김성탁(金聖鐸)·이만녕(李萬寧)을 비롯한 임원진이 142명에 이르렀다. 안동 유림의 대표가 모두 참가한 의병진으로 기록돼 있다.⁵⁰⁾ 무신란 60년 뒤에 정치적 변명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신란 당시의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그런 방법으로도라도 생존의 길을 찾아야 했던 안동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만 역사에

46) 『戊申逆獄推案』 권일, 3월 26일자 李麟佐供14책, 575쪽에 의하면(이종범 앞의 글, 196쪽) 권구와 유몽서는 김홍수에 약속했다고 했다. 대표자격인 權渠(1672-1749)는 풍산면 가곡리(가일) 출신으로 갈암 李玄逸의 문인인데 호를 屏谷이라 했다. 외조는 풍산 柳元之이고 처부는 스승의 아들 재령 李穰이다. 백가에 두루 능통하고 성리학의 저술이 많았다.

47) 당시의 심문 문서인 『戊申逆獄推案』 권1, 3월 26일조, 李麟佐供(14책 566쪽).

48) 李鍾範, 「1728년 戊申亂의 性格」 『朝鮮時代政治史의 재조명』, 범조사, 1985, 196-206-207-211쪽. 권구는 피난을 떠나 만나지 못하고, 유몽서 등은 좌수가 듣지 않고 일자가 촉박하다고 해서 듣지 않았다고 한다(206쪽).

49) 李在喆, 「18세기 慶尙右道 士林과 鄭希亮亂」 『大丘史學』 31, 대구사학회, 1986, 62쪽.

50) 柳時茂·李木編, 『戊申倡義錄』, 신일문화사, 1989년판, 7-25쪽.

남겼다.⁵¹⁾

무신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안동 사림을 회유하기 위하여 남인당의 원로 조덕린(趙德鄰·영양출신)을 영남호소사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옥천 조덕린은 70노구를 이끌고 내려가 진정시키기는 했으나 뒤가 맑을 수는 없었다. 안동에서 반란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을 노론측에서 모를 턱이 없었다. 그러나 안동 사림까지 처단하면 숙청 대상이 너무 광범하여 왕실로서도 부담이 되었다. 다시 반란을 일으킬 염려도 있었다. 그러므로 일단 덮어두었다가 영조 6년에 주동급 몇몇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리하여 무신란을 계기로 전국에서 소론과 남인이 크게 타격을 입을 때, 안동의 남인만은 화를 면하고 미약하나마 정치적 생명까지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안동 사림의 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일 영조의 원수 김일경(金一鏡)의 유고집을 안동에서 간행한 것으로 역력히 드러났다.⁵²⁾ 그렇게 본심이 아니었다면 안동 사림의 모험은 우직한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줄타기에 불과했다. 줄타기에서 일단 성공은 했지만 박수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조덕린도 노론정권으로부터 냉

51) 안동지방에서 예안에찬영주순흥풍가의성영양봉화진보용궁청송의흥군위와 근방의 상주문경영천지방에서도 대규모의 의병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앞의 책, 『戊申倡義錄』 참조) 그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과장도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52) 안동 유림의 내심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그것은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킨 직접 이유가 英祖 즉위년에 영조를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金一鏡이 처단된 것인데 구한말에 김일경이 신원되자 안동 유림이 서둘러 그의 『Y溪先生遺稿』를 간행한 것을 말한다. 『遺稿』를 보면 金應煥이 서문을 쓰고, 「부록」에 李晩燾의 「請復官爵疏」(1905)를 비롯하여 金道和의 「行狀」, 趙承基의 「行狀後敘」, 柳必永의 「遺事總論」, 李晩燾와 呂圭亨의 「祭壇碑銘」이 실려 있다. 충남 출신 김일경의 유고집을 어떻게 안동에서 간행했던지는 알수 없으나 그에 관련한 안동의 인물들은 당시에 안동을 대표할 선비들이었다. 이만도·김도화·조승기는 을미사변 후 한말의병장으로 활약했는데, 특히 조승기는 무신란때 영남호소사였던 趙德鄰의 집안 종손이고, 유필영은 무신란때 안동 창의대장이었던 柳升鉉의 집안 종손이었다. 그렇다면 무신란을 막은 것이 본심이 아니라 내심은 무신란 자체에 있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영조의 원수인 김일경의 유문을 수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하게 버림을 받았다. 이러한 안동 사림의 태도가 옳든 그르든 간에 구조적으로 보면 문중 단위로 응집된 조직이 임진왜란의 의병진형성 때처럼, 안동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심가치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말이다.⁵³⁾ 그러니까 반란에 호응할 때도, 변경할 때도, 수습할 때도 낙동강의 흐름처럼 유유히 흐르는 방식이 아닌 역시 줄타기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반상이 분열하고, 붕당이 발생하면서 사족의 힘이 분산하고, 사회조직의 문중화와 더불어 중심 가치가 퇴색해 갔다. 조선중기에 중심가치에 올랐던 퇴계학도 중심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퇴계학도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대처한 새로운 해석과 재창조가 요구되었다.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이 안동지방에서 크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해 영덕의 수산물이나 풍기 인삼의 거래를 통한 보부상과 객주제도가 발달하고 좀 뒤늦기는 했으나 풍기에 몰려든 정감록과의 공장제 수공업의 인조비단 거래가 상업을 크게 일으켰던 사실과 각처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있던 점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당대의 지성은 당연히 대답을 제시해야 했다. 그와 더불어 하회탈춤에 버금가는 서민의 양반 풍자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퇴계 문인가운데 기호 남인들이 실학을 일으킬 때 안동에서도 그와 같은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실학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안동 유림이 이익·안정복·채제공이·가환·정약용 등의 실학자로부터 선조의 행장이나 묘표와 묘지문 등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 그들과 교류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들의 창조적 재주는 받아 오지 못했다. 기호 남인들은 퇴계학에 기초하면서 새시대에 대처한 실학을 일으켰던 것이다.⁵⁴⁾ 그런데

53) 그 무렵에 안동 천전리 의성 김씨 종택(청계 종택) 사랑방에서 자주 집회를 열었다. 그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랑채를 허물어 의혹의 여지를 없앴다고 한다.

정작 퇴계의 고장에서는 새시대에 대응하여 퇴계학을 새롭게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중세적 명분론에 얽매인 경색된 분위기만 심화되고 있었다.

영조 11년에는 양송종사문제가 고조되었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묘 배향 즉, 양송종사가 거론되자, 이인지(李麟至)를 비롯한 안동 상주지방의 사림 4천명이 일어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연명자 4천명은 앞에서 소개한 우율종사문제 때처럼 범영남이 아니고 상주와 안동 사림에 국한된 인원이었으므로 안동의 사림이 총동원되었다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⁵⁵⁾ 양송승무(兩宋陞廡)문제는 역시 논론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하여 영조 32년(1756)에는 양송을 종사하게 되었지만 그와 같이 안동 상주지방 유림의 반대투쟁이 실패했다는 것은 안동 유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기회가 점점 봉쇄 당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계에 남아있더라도 한직에 머물거나 승진이 되지 않았다.

그때 논론은 적극적 공세를 취하여 안동에 노론 근거지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영조 14년(1738) 김상헌서원(金尙憲書院) 건립이었다. 김상헌은 안동출신 노론의 대표적 인물이었으므로 명분도 있었다. 경상도 관찰사 유척기(兪拓基)와 안동부사 어유룡(魚有龍)이 안동의 강씨·신씨·안씨문중과 손잡고 추진하였다. 안택준(安宅駿)·김창적(金昌迪) 등이 앞장을 섰다. 임금에게는 보고하기 전이었으므로 서원 이름도 없었다.⁵⁶⁾ 그런데 남인당의 마지막 명맥을 쥐고 있던 안

54) 李漢安鼎福尹東奎는 『李子粹語』를 짓고, 丁若鏞은 『陶山私淑錄』을 지을 정도로 퇴계를 따랐다.

55) 『承政院日記』 권821, 영조12년 3월 12일조에 상소 경위와 연명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56) 풍자해서 일컫는 말인지는 몰라도 鎮南書院이라고도 한다.

동사림이었으므로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사림이 봉기하여 서원을 두들겨 부신 것이다. 안동 좌수 김몽염(金夢濂)과 향교의 김경헌(金景憲)을 비롯하여 유정화(柳鼎和)·유영화(柳英和)·황우청(黃又淸)·이세응(李世應)등이 앞장섰다.⁵⁷⁾ 중앙에서도 모두 놀랐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론의 공세에 따라 노론으로 변절한 이른바 신견자(新見者)가 속출하여 안동도 남인이 힘을 잃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안동은 남인 천하라는 것을 과시하듯 뜻밖의 반격을 당한 것이다. 관찰사나 부사의 힘으로도 안동 사림의 폭력시위를 막을 수가 없었다. 안동에서 행정력이 얼마나 미약했든가는 전통시대에 어느 고을이나 없는 곳이 없는 선정비가 안동에는 단 한 개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김상헌서원을 부신 안동 양반들의 폭력시위를 집권자 노론은 10년 전 무신란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노론당은 당세 전력을 기울여 보복에 나섰다. 더구나 경상감사를 지낸바 있는 소론의 박문수(朴文秀)와 조현명(趙顯命)이 안동 남인을 변호하고 나섰으므로 노론은 정치 생명을 걸고 안동 토벌에 나섰다.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잡혀가서도 절개를 지킨 김상헌이고, 그는 안동 소산출신이므로 당연히 그의 충절을 안동에서 기려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런 서원을 훼손한 안동 유림을 역적이라 했다. 그러나 남인측으로 보면 노론의 세력 침투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리고 안동 향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김상헌서원이 안동에서 문을 열면 거기를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안동 좌수의 자리도 노론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57) 鄭萬祚, 「英祖14년의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211쪽.

한편, 당시에는 서원 건립에 대하여 비판 여론이 비등할 때였으므로 노론 정권도 안동의 서원 건립을 강행할 수만 없었다. 그것을 계기로 서원 전반에 대한 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때 마침 함경도 북청에 있는 노덕서원(老德書院)에 소론 영수 이광좌(李光佐)를 모신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광좌는 소론의 영수로 김일경과 가깝고 무신란의 배후인물로도 의심을 받았었다. 그가 영조 16년에 죽었는데 그의 고조부 이항복(李恒福)을 제향한 노덕서원에 허가 없이 추가로 모신 것이다. 허가 없는 서원 건립과 추향을 금한 숙종 40년의 왕명을 위반했다. 위반 사례가 많았지만 이광좌는 소론 영수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론의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숙종 40년(1714) 이후에 건립한 서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철거하게 되었다.⁵⁸⁾ 그것이 영조 17년(1741)의 「사원훼철령」이다. 그에 따라 173개의 서원 향사가 훼철되었다.⁵⁹⁾ 그때 안동지방에서는 순흥·예안·예천·봉화의 성·비안에서 각각 1개씩의 정사(精舍)를 비롯하여 11개가 철거 당했다. 영덕에 건립한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도 철거한 것을 보면 차별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동지방에서 인산서원이 영영 철거되고 지산서당(김방걸)이나 임산서당(조덕린)을 서원으로 만들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불만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안동 사람이 실각한 1694년 갑술환국 이후 1728년 무신란과 1735년 양송종사 반대운동, 1738년의 김상헌서원 파괴와 1741년의 사원 훼철반대 등으로 중앙 정계와는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동의 남인당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경상감사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였

58) 백사 李恒福을 모신 老德書院에는 閔鼎重·吳斗寅 등의 노론 인물이 추향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 거두 李光佐가 합향된다는 것은 그가 이항복의 현손이라고 해도 노론측에서는 용납이 안되었다.

59) 鄭萬祚, 「英祖17년의 祠院毀撤」『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289쪽.

다. 정익하(鄭益河) 감사는 귀정록(歸正錄)을 만들어 안동 유림이 노론으로 돌아설 것을 종용했고, 그에 이은 조영복(趙榮福) 감사도 같은 방법으로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앙의 노론당에 보낸 편지에서 “그물을 낙동강에 던졌더니 종일 소득이 미꾸라지 몇 마리 뿐이요. 천김(川金)은 쟁쟁하고 하류(河柳)는 청청하다” 라고 당시의 심정을 익살스럽게 토로했다.⁶⁰⁾ 여기서 천김은 천전(내앞) 김씨를 이룸이요 하류는 하회 유씨를 가리키는데 노론은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한탄한 것이다.

정조 때(재위; 1777-1800) 임금의 호의로 남인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노론의 집요한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남인의 영수 채제공이 영의정에 올랐다가 노론의 공세를 받아 물러나야 했고, 갑술환국때 실각한 이현일이나 무신란때 영남호소사를 역임한 조덕린이 정조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역적의 누명을 벗고 일어설 수 없었다. 그것은 남인을 옹호하던 정조때라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헌 후손인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등장한 순조(재위; 1801-1834) 이후의 정국에서는 말할 여지가 없었다. 김상헌의 서원을 때려 부신 안동이었으므로 그들의 세도가 등등하던 철종(재위; 1850-1863) 때까지 벼슬을 얻는다는 것은 꿈꿀 수가 없었다. 노론이 없는 세상을 찾았다.⁶¹⁾ 안동으로서는 새로운 정국이 전개되기를 학수고대하였다. 그 때에 대원군이 등장하였다.

그 무렵 안동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 영조 말년경에 편찬된 『

60) 成樂熏,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386쪽.

61) 1910년 대한제국을 병탄한 일본은 조선귀족명을 발표하여 76인의 식민지 귀족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소론 7명, 복인 2명 외에 전원이 노론이었다고 한다(成樂熏,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388쪽). 그때 안동 유림은 10명 전후의 자결자가 있었고, 1백호 5백명 가량의 인원이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일본 식민지에서도 노론의 천지가 된다는 데 대한 반사 심리도 작용한 것이 아닐는지 알 수 없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안동의 호구는 1만 5,597호에 인구는 6만 6,929명으로 남자가 2만 6,162명, 여자가 4만 668명이었다고 한다.⁶²⁾ 남녀의 현격한 차이가 사실인지 통계의 잘못인지 앞으로 상고할 일이다. 영조 50년 전국 호구는 169만 2,607호에 703만 9,068명이고 경상도는 36만 4,012호에 156만 3,587명이었다.⁶³⁾

4. 구한말 근대화의 시도도 남달랐던 안동

1) 옛 바람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근대란 특권계급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조선시대로 보면 양반과 중인의 특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반봉건주의를 앞세운다. 반봉건이란 어떠한 특권도 없애자는 꿈을 말한다. 그런 꿈이 근대에 비로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만적의 난, 임꺽정이나 홍길동의 이야기, 장길산의 난 등이 모두 그러한 꿈을 꽃피우다가 불나비처럼 희생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때의 반란은 반란일 뿐이었다. 왕조를 뒤엎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운다는 정치 이론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특권을 없애고 합리적 세상, 근대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근대혁명과 달랐다. 1860년대에 일어난 동학이나 삼남민란 같은 것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국가 이론을 내놓으려고 했던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때 등장한 대원군의 개혁정치도 보면 양반세를 억누르고 평등한 인재등용, 서원철폐, 양반에 대한 호

62) 『輿地圖書』에 의하면 그때 醴泉郡은 7,725호에 2만 6,901명, 榮川(주)郡은 3,649호에 2만 3,452명, 禮安縣은 1,782호에 5,836명, 奉化縣은 1,106호에 5,798명, 莒陽縣은 2,725호에 1만 413명, 眞寶縣은 1,259호에 5,873명, 靑松府는 2,996호에 1만 367명, 大丘都護府는 1만 2,752호에 5만 9,614명, 尙州牧은 1만 8,416호에 7만 21명, 慶州府는 1만 7,219호에 7만 891명이었다고 한다.

63) 『戶口總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13-14쪽.

포제 실시 등, 그때로서는 혁명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친 것도 그때의 일이다. 그래서 1860년대를 근대사의 출발로 보는 것이다.

1864년 갑자년이 광무황제(고종) 1년이다.⁶⁴⁾ 광무황제는 어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정치를 좌우하였다. 그가 해야한 1873년까지를 대원군 집정기라 한다. 대원군 집정으로 세도정치는 막을 내렸다. 그것만이라도 안동 사림은 반가와 만세를 불렀다. 뿐만 아니라 유후조(柳厚祚)가 정승에 발탁되는 등 많은 인사가 특채된 파격적 변화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런데 안동 유림은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것이 없었다. 특채된 선비가 서양 군함의 침략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 엉뚱하게도 왕도와 패도의 고전적 정치론을 펴기만 했다. 새로운 식견이 없었다. 대원군은 침략에 대처할 방도를 찾고 있는데 그를 보좌하고 뒤를 바칠 인재가 없었다. 국민의 역량 부족이 역력히 드러난 대원군 집정기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서울은 장안을 탈출할 피난민으로 웅성댈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실각한 세도정치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올라오고 있었다. 대원군도 놀랐다.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으려면 그들을 재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원군이 안동에서 인물이 공급될 것을 바랐으나 공급할 준비가 없었다.

오히려 대원군의 서원철폐에 대하여 반항하였다. 처음에 노론본부인 만동묘와 화양동서원의 철폐를 보고 내심 좋아했던 안동 유림이 광무황제 8년(1871)에 700개가 넘는 서원 향사를 47개만 남기고 모

64) 광무황제 1년이란 1864년의 즉위 1년을 말한다. 광무 1년은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연호를 광무라고 칭한 그 해를 말한다. 그러므로 광무황제 1년과 광무 1년은 33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고종이란 1919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므로 그때 독립운동자를 비롯한 뜻있는 지식인은 사용하지 않았다. 필자도 그들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두 철폐할 때 안동지방의 것도 거의 철폐 당하자 저항하였다. 서원 철폐로 전국에서 47개만 남았을 때, 안동지방에서는 안동부의 병산 서원, 예안현의 도산서원, 순흥부의 소수서원만 남았다.⁶⁵⁾ 그래서 정민병(鄭民秉)을 비롯한 영남 63개 고을의 유생 1만 27명이 만인소를 올려 저항하였다. 혹은 1872년에 유흥영(柳興榮)이 반란을 일으켜 문경 새재에 진을 치고 저항한 그런 일도 있었다.⁶⁶⁾ 이휘병(李彙秉)처럼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하는 이도 있었다.⁶⁷⁾ 결국 대원군은 물러났는데 그때서는 퇴각을 아쉬워했다.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자 유도수(柳道洙)등이 만인소를 올려 대원군의 재집권을 위한 봉환운동을 폈다. 서원철폐와 호포제 실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원군만큼 안동에 유리한 정치를 펼 인물이 없다는 여론이었다.⁶⁸⁾ 그러나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1873년 대원군의 퇴각은 새 정국의 전개를 의미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이어, 1880년에는 중신회의를 열어 서양과도 통상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기로 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군의 대포 앞에 굴복한 조약이었지만, 1880년 10월 12일의 중신회

65) 현재 안동시에는 祠堂과 精舍가 아니고 書院의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 22개가 있는데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외에 20개 서원은 후일에 대개 문중에서 복원하거나 신설한 것이다(안동시·안동대 박물관, 『安東遺蹟地圖』, 2000, 454-455쪽).

66) 『高宗實錄』 권9, 9년 壬申 4월(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탐구당, 391쪽).

67) 李彙秉은 헌종 15년(1849)에 대과에 급제했으나 세도정치에 불만을 품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다가 1864년 대원군 집정후에 승문원·사간원·사헌부·홍문관을 거쳐 우부승지까지 올랐는데 柳馨遠 문집인 『磻溪隱錄』의 토지제 개혁을 주장하고 서원철폐의 조절을 주장하다가 대원군과 대립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진보현 피정리 산골에 은거하였다. 안동 사람 가운데 당색을 불문하고 실학을 주장한 흔치 않은 사례가 발견되기에 언급해 둔다(柳必永,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官 修撰官 李公墓碣銘」 『西坡先生文集』 권 20).

68) 鄭震英,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政治的 動向」 『韓末 嶺南儒學界의 動向』, 영남대학교, 1998, 131-143쪽.

의 결정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의 권유를 수용한 것이긴 해도 자주적 개항을 결정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그에 대하여 당시의 유학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김홍집(金弘集)을 비롯한 개신 유학자는 문호를 열자는 것이고, 경기도 이항로(李恒老)의 문인과 충청도의 한원진(韓元震)문인과 전라도 기정진(奇正鎭)의 문인과 안동의 유치명(柳致明)의 문인은 개항을 반대하였다. 안동의 반대는 강도가 비교적 약했다. 그런데도 척사 만인소를 올릴 정도였으니 반대 강도가 강한 이항로와 기정진 문인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영남 만인소는 이만손(李晩孫)을 소수로 1880년 11월에 안동향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으로 전달된 때는 이듬해 신사년이었으므로 신사척사소(辛巳斥邪疏)라 일컫는다. 안동 유림의 우율종사 반대소를 비롯한 그 동안의 보수적 상소운동으로 보면 마지막 꽃불로 피워 올린 비장미(悲壯美) 넘친 상소이기도 했다.⁶⁹⁾ 그러나 모두 묵살되고 말았다.

신사척사소 또는 영남만인소의 정신이 상대를 바꾸어 행동으로 폭발한 것이 1894-6년의 항일의병의 봉기였다. 1894년 일본군이 경북 궁을 점령한 갑오왜란이 일어나자 안동 향교에서 서상철을 중심으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것이 한말의병의 효시였다. 그러니까 한말 의병전쟁사는 안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895년 일본군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에 이어 을미개혁이 강행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안동에서는 권세연에 이어 김도화의 의병이 일어났고, 예안에서는 이만도의 의병이 일어나 1896년에는 양쪽 진영이 합동하여 상주 태봉에 진주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때 안동지방 즉, 경북 북부지방

69) 鄭震英, 앞의 글, 144-163쪽.

전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영양의 조승기, 영해의 이수악, 영덕의 신운석, 진보의 허훈, 청송의 심성지, 의성의 김상중, 예천의 박주대, 봉화의 금석주, 영주의 김우창 등이 모두 위정척사의 깃발을 들고 의병을 일으켰다.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알 바가 아니요, 오로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거기의 정의는 위정척사 즉, 성리학의 정의였다. 그러므로 일본군은 안동 시가를 불태우고 성리학의 본산인 퇴계 종택을 불태우고 성리학의 대표 김홍락을 포박하여 협박했다. 성리학의 뿌리를 자르려 했다. 그러나 침략군에 굴복하지 않았다. 당장에는 그들에게 패전했다고 해도 굴복할 선비들이 아니었다.

안동 선비들은 조선후기 2백년 야당(남인)으로 남달리 저항정신을 길러왔다. 그의 저항정신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중기의병부터는 민중의병의 봉기를 맞아 그와 합류하면서, 또는 계몽주의를 일으키면서, 새롭게 발전해 갔다. 중기의병 때 이상룡 박경종이 거금을 투자하여 가야산에 의진을 설치하고 일대전쟁을 계획하였다. 그것은 차은표(車隱杓)의 실수로 무산되고 말았지만⁷⁰⁾ 이와 같이 의병전쟁이 처음에는 척사의병으로 출발하여 중기의병에서는 애국주의 의병으로 변천했다. 의병은 충도(忠道)-충군(忠君)-충국(忠國)-충민(忠民)의 성격으로 변해 갔다.

2) 새바람은 신분별로 일어났다.

한국사에서 봉건계급에 대한 비판론은 숙종때부터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정조때에 오면 『추관지(秋官志)』 노비조에서 보듯이 정부

70) 李圭洪, 『洗心軒日記』 1906년 1월조에 당시의 진행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이규홍은 이상룡과 함께 西山 金興洛의 문인이다.

간행물에서 원래 노비란 없었다고 인간 평등을 말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19세기 사회 모순이 심화되면서 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신분제 타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신분타파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860년 동학운동의 발생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안동지방에 전달되어 사회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1871년 이필제(李弼濟)의 난이었다. 이필제의 난은 영해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동학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참가 조종하고 있었다. 동학은 경주에서 발생하여 동해안으로 전파되어 최시형이 한때 영양 용화에서 포교했다. 이필제란이 영해에서 문경에 이르기까지 북부 산악지대를 휩쓸었다는 것은 안동권 일대에 동학교가 크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예천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도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다. 예천에서 동학군을 맞아 싸운 것이 그곳 양반이 아니라 아전이었다는 사실도 이 시기의 사회상을 말하는 것이다.⁷¹⁾

이필제의 난도, 동학농민전쟁도, 모두 봉쇄 당하고 말았다. 조선 봉건제도에 반기를 들고 봉기했던 농민들은 생명을 부지할 방도가 막막했다. 그리하여 1894·5·6년의 전기 의병전쟁에 몸을 기탁하였는데 의병을 주도한 유림이 1896년 10월까지의 모두 해산하고 말았다. 그 후 농민들은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을 조직하여 목숨도 부지하며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와 같이 항전한 1896년부터 1904년까지의 농민운동을 필자는 광무농민운동이라 이름하고 있다.⁷²⁾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활빈당의 활동이다. 안동 청량산과 영양 일월산과 영해 명동산 일대는 활빈당의 무대였다. 활빈당은 의적(義賊)이었다. 안동

71) 朴周大, 『渚上日月』, 1894년 8월 1일의 일기부터 예천의 동학군 사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필자가 참고한 것은 朴成壽 번역본(서울신문사, 1993)이었다.

72) 조동걸, 「光武農民運動」 『韓國民族主義의 성립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39-41.

봉화·영양·영해·영덕·청송지방에 활빈당 이야기가 무성한데 그것이 평등사상을 고양하는 데 적지않게 기여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활빈당이 1904년 노일전쟁을 기회로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를 맞아 의병전쟁으로 전환해 갔다.⁷³⁾ 그것이 신돌석의 의병이었다. 신돌석은 영해 출신이지만 그의 활동 무대는 경상도 북부지방 전역에 이르고, 이상룡·박경종의 가야산 의병봉기가 좌절되면서 이 지방에서 중기 의병전쟁을 전담하고 있었다.⁷⁴⁾ 그후 평민의병이 광범하게 성장하여 평등사상을 더욱 고양하면서 독립운동을 발전시켰다.

세상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중인계층이었다. 서울의 중인은 통역관·의사·행정관리(경아전) 등인데 지방에는 행정관리 즉, 향리가 중인의 대종을 이루었다. 향리를 관청 앞에 산다고 해서 아전이라 했다. 안동에서 아전 가운데 권대일처럼 의병으로 순국한 경우도 있지만, 시세변화를 감지하고 신교육을 통해 신지식을 수용한 인사도 많아 안동의 변화에 크게 영향하였다. 화산학원을 설립하여 안동중학교 기초를 닦은 권현섭(權賢燮), 권오중 제헌 국회의원의 아버지로 신교육에 이바지한 권녕기(權寧淇), 안동소주회사와 안동포판매조합, 그리고 안동도서관을 설립하고 안동농림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등, 안동의 기업과 교육진흥에 앞장선 권참사로 알려진 권태연(權台淵), 선대에 북후면으로 퇴촌해서 아전과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중휘(權重徽)의 집안 등이 개화 선봉자로 손꼽힌다. 개화 2세대로서 지금 1백살 전후 인

73) 조동걸,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的 位置」, 위의 책, 23-46쪽.

74) 1903·4년 『황성신문』을 보면 활빈당이 의병을 자칭한다는 자료가 발견된다. 거기에 근거하여 필자가 조교 공기택과 조창용 두 사람에게 1981·2년에 영덕·영양·안동지방에 활빈당 관계 증언을 청취케 한 바가 있었는데 활빈당과 신돌석 의병이 연결된 개연성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었다.

물은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안에서는 일찍이 미국과 교역을 열었던 신덕(申德)을 비롯하여 신응한(申應漢)·신상면(申尙冕)·신호균(申浩均)·신응인(申應仁) 등을 손꼽는데 그들의 자손으로 해방후 각료급의 신현돈·신기석·신학진·신하규 등이 있었다. 이들은 안동에서 누구보다 앞서 신문화를 수용하여 새바람을 일으켜 안동을 새롭게 만들었다.

신사상 신문화 수용은 당연히 유럽 사족이 가장 늦었다. 안동지방 사족으로는 영양의 주실 마을이 가장 빨랐다. 1899년 조병희의 단발을 계기로 마을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여 국민교육회·대한자강회·대한협회에서 활약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⁷⁵⁾ 안동에서는 1906년 광무황제의 문명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흥학조칙(興學詔勅)과 그에 따른 흥학훈령이 내려오면서 1907년부터 문명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안동 동부 7면이 협력하여 천전리에 설립한 협동학교는 1908년부터 중등학교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계몽주의 학교가 되었다. 김병식·유인식·하중환·김후병 등이 서울의 신민회의 지원을 받아 개교하였다. 이관직·이동녕·김기수·안상덕·김동삼·김형식 같은 우수한 교원까지 확보했으므로 신교육을 받으려는 청년들이 운집하였다. 그때까지 의병전쟁을 주도하거나 지원하던 이상룡·김대락 같은 보수 유럽도 혁명적으로 일변하여 협동학교를 지원하였다.⁷⁶⁾ 이상룡·김대락의 변화는 안동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전기가 되었다. 안동에 대한협회 안동지회와 교남교육회 안동지회가 결성되어 김만식·김응섭·김시현·김지섭 등이 앞장 서 마을마다

75) 김희곤외, 『영양 주실마을-전통과 혁신의 고장』,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2001 참조.

76) 조동걸, 「傳統名家的 근대적 變容과 독립운동 事例」 『大東文化研究』 36, 2000, 392쪽.

신교육의 바람을 일으켰다.

** 이상과 같이 한국사에서 근대화가 시험될 때 안동에서는 상민이 주도하여 이필제의 동학민란과 활빈당 활동을 통하여 평민의식이 고양되었고, 중인의 유학을 통한 신문화의 수용과 혁신 유림의 계몽주의운동 등을 통하여 신문화, 신사상이 수용되면서 근대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거기에서 유의할 것은 신문화를 신분별로 수용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안동이 나아갈 방향은 신분의 해체요 운동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어야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안동인의 과제이기도 했다. 다음에 유의할 것은 신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편승하기 쉬운 제국주의는 배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운동을 선구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다. 한편, 식민지하에서 양반들은 식민지 지주가 되어 식민통치에 기여한 경우가 많았다. 중인은 개화를 빙자하여 일제 침략을 유도하거나 방관한 경우가 많았다. 상민은 일진회 같은 매국단체를 만들어 침략군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안동은 독립운동자를 배출한 인원이 전국 시군 어디보다 많았다. 그 이유를 찾아 그것을 키워 가는 것이 그나마 나라 잃은 시대의 지혜일 것이다.

5. 독립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열고

1) 식민지시기의 안동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서양의 식민통치와 다른 특징이 있었다. 첫째가 식민지 경제를 자기 본국의 생활경제와 밀착시켰다는 점

이다. 서양 제국주의는 식민지에서 경제적 이익을 올리면 됐지 억지로 본국과 직결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군수공장의 배치, 1940년대 증미계획의 추진이 모두 본국인의 쌀 공급이나 본국인이 굶어질 전 시경제를 식민지에 전가한 것이었다. 그것을 경제개발로 착각해서 안 된다. 둘째는 민족동화정책인데 조선을 영구식민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를 **위하여 식민교육, 식민사학, 식민문화를 진흥시켰다. 그것을 정상적 교육진흥, 문화진흥처럼 이해해서 안 된다. 셋째는 그런 것을 달성하자면 간접 식민통치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직접 식민통치를 강행했다. 이등박문이 1909년에 발표한 바로는 2백만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계획하였다. 조선을 직접 지배하기 위함이었는데 가능하면 조선인을 인디안의 운명처럼 혼혈로 개종하거나 멸종시킬 계획이었다. 넷째는 위의 세 가지 일을 강행하자면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통치비용의 과다 지출이 특징이었다. 그것은 개발비용이 아니라 수탈비용이었다. 그러한 특징이 안동에도 쏟아지고 있었다. 밭을 논으로 고쳐 쌀농사로 통제한 것은 수탈 효용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식민교육에 따라 철모르는 어린이까지 논둑 밭둑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게 했다. 면마다 있었던 소학교의 일본인 교사와 주재소 순사가 마을을 순회하며 일본 노래를 장려하고 감시했다. 철없는 사람은 그의 앞잡이를 했다. 그러나 안동에 일본인 자산가가 많아 경제적 침탈을 당했던 것은 아니다. 1934년 집계에서도 1만원 이상의 일본인 자산가가 경북도내에 552명인데 안동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⁷⁷⁾ ——*

77) 한국인 자산가도 1만원 이상이 181명, 5만원이상 28명, 10만원 이상이 3명 뿐일 정도로 부호가 적었다. 그때 경북지방에서 1만원 이상 한국인 자산가는 2,348명이었다 (경북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934, 333쪽).

식민지시기 안동군은 지금의 안동시와 비슷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조정에서 20개면 203개 동이 1931년에 1읍 15개면 218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면은 줄고 인구 증가에 따라 동리는 늘어났다. 면이란 전통시대에는 행정 단위가 아니었다. 때문에 향약이 발달해도 향회를 바탕으로 한 군단위 향약이고, 아니면 이동 향약이었다. 그래서 이동계도 발달했다. 그런데 1914년에 일제가 행정 단위의 면을 설치하면서 면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이동을 통할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지방행정의 중심이 군과 이동에서 면으로 이동했다. 그에 따라 이동계도 면으로 흡수된 경우가 많았다.⁷⁸⁾ 안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15개 면장회의가 소집되면 안동읍은 온통 잔치마당이 되었다. 면장들은 자신들이 이동 자치기능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권세에 도취한 면장이 기차를 세웠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해 오는 것이다. 1917년 안동의 호구는 25,932호에 139,329명이었다. 조선후기 영조때 집계와(전술)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로 증가한 셈이다. 그때 전국 호구는 3백20만 호에 1천7백만 명이었다.⁷⁹⁾

안동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었고, 전매청·세무서가 북부지구를 관할하고 있어 여전히 북부 권역 중심 도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39년에는 경경선(지금의 중앙선)이 개통되고 철도청이 안동에 설치되어 교통의 중심지도 되었다. 초등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던 당시에 안동에는 식민지 실무 인력을 공급하는 안동농림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서 교육의 중심지가 됐던 것

78) 朴惠淑, 「日帝下 農村契에 대한 研究」, 1986년도 숙명여대 대학원 논문.

79)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大正6年(1917), 23쪽.

은 전통시대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시장이 더욱 발달하고 여관업과 대서업이 호경기를 누렸다. 누가 자식교육의 이유에 대해서 식민지 대서방에 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2) 안동을 지키며 독립운동에 이바지하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안동에서는 자결 순국자가 속출했다는 점이 남달랐다. 1907년 김순흠이 자결한데 이어 1910년에는 이만도·이중언·유도발·이현섭·권용하·김택진·이면주(봉화)·김성진(영주), 그리고 김도현(영양;1914)·유신영(1919)·이명우(1919)등이 자결 순국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자결자의 고장이 되었다. 특히 이만도는 24일간의 단식 때 방문자에게 죽는 자의 교훈을 직접 전달하였고, 김도현은 유일한 도해 순국의 기록을 남겼다. 자결자는 식민지에서 살기를 거부한 열사였다. 한편, 식민지에 살기를 거부하고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므로 1910년의 안동에는 연일 자결자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던 가운데 서간도로 떠나는 1백여 호의 망명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다. 나라가 망한 모습이 그 이상으로 어떻게 비참할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한 뒤에 이 지방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는 대한광복회였다. 1913년 풍기에서 결성하여 1915년에는 본부를 대구로 옮겼는데 안동에서 그에 참가한 것은 권준희·권준흥·이종영·이동흠·권영만(영양)·강병수(봉화)·임세규(영주)·조용필(예천)·윤창하(예천)·정진화(예천) 등이었다. 이럴 때 공교육에 맞선 민립학교도 있었다. 1910년대 안동에 있던 민립학교가 수곡리 협동학교를 비롯하여 29개교에 이른다고 했다.⁸⁰⁾

그와 같은 자결 순국과 우국지사의 망명, 대한광복회의 활동, 민립 학교의 민족교육의 결실이 1919년의 3·1운동이다. 안동의 3·1운동은 그 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전국에서 10대운동으로 손꼽을 정도로 규모도 컸고 수준도 높았다. 유림이 대거 봉기하였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므로 각 면 통계만 소개해 둔다.

<안동 3·1운동 면별·일자별 참가인원>

면 이름	13일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안 동	1		250			3,000		
예 안		1,500		2,000				
도 산			수십					
임 동				1,500				
임 북					300			
임 하				300				
길 안				350				
일 직				100				
동 후						100		
풍 산							수십	
풍 남								소년23

* 출전 ;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1999, 232쪽.

80) 金喜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177-178쪽.

그리고 유림만으로 파리장서를 작성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전달했다. 그것은 김창숙(金昌淑)과 이중업(李中業)이 추진했다. 이중업은 하계리 이만도의 아들이다. 이만도는 1910년에 자결 순국하고 이중업의 아들 이동흙(李棟欽)은 대한광복회에서 활약하고 그의 동생 이종흙(李棕欽)은 1926년 제2차 유림단사건 때 활약하였다. 그리고 이중업의 아내 김락(金洛)은 독립운동가 가정의 부인답게 일경의 고문에 실명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저항했다.⁸¹⁾ 김락 여사 외에 안동 출신 여류인사로 남자현·이해동·허은 여사처럼 만주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전통적 열여로 몸바친 경우라고 할수 있지만, 3·1운동을 통하여 여권의식이 크게 성장한 것과 아울러 신분해방의식이 확산된 측면에서 주목할 점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백안시 당하던 기독교가 3·1운동에 동참하므로써 제국주의 종교의 오해를 씻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3·1운동 뒤에 해외로 망명한 인원이 크게 늘어났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이 다양하게 발전해 갔다. 3·1운동의 기본 이념이 인도주의에 있었으므로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으로 자유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사상이 대두하였다. 사상은 자기의 처지에 따라 생각한 것이므로 부자와 형제의 사상이 다를 수 있다. 누구는 국밥을 좋아하고 누구는 비빔밥을 좋아한 차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법이 대두하였다. 그래서 192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이 민족

81) 조동걸, 「巴里長書의 성격과 역사적 意義」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92쪽.

_____, 「響山 李晚燾의 독립운동과 그의 遺志」, 위의 책, 209쪽.

_____, 「心山 金昌淑의 독립운동과 遺訓」 『韓國近現代史의 理想과 形象』, 푸른역사, 2001, 67쪽.

총력항쟁이었다. 각기 재주껏 독립운동에 몸바쳤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반듯한 것도 있고 비뚤은 것도 있었다. 안동에서 손꼽을만한 것으
 해외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시현·김용환 등의 의용단(義勇團)
 활동, 유주희·이운호 등의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안동지부
 의 활동, 김원진 등의 안동물산장려회, 유경하·오련수 등의 안동청년
 회, 김남수·안상길 등의 안동청년동맹, 유연건의 길안청년회(吉安靑
 年會), 신덕·이규호 등의 예안청년회, 이준태·권오설등의 화성회(火星
 會)와 풍산소작인회, 김재봉·이준태·안상길·김남수·권오설 등의 조선노
 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그리고 김남수·유준희·김원진·권중택 등에
 의한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를 통한 언론 활동들이 1920년
 대 안동사회를 독립운동의 열기로 넘치게 하였다.⁸²⁾

그런 가운데 1925년에는 심산 김창숙이 송영호(宋永祐; 영주)·김
 화식(金華植; 안동)과 함께 몽골지방에 대규모의 독립군기지 개척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그해 8월부터 8개월간에 걸친 군자금을 모금하여
 이듬해 3월에 망명한 이튼바 제2차 유림단사건이 전개되었다. 그때
 이동흙 이종흙 김동식 김화식 김창식 등 안동 인물이 주도하여 모금
 하였다. 그 돈으로 1926년 12월에 서울 천지를 진동시킨 나석주의사
 의 동척폭과 의거였다.

한편,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어 김재봉(金在鳳)이 1차당 비
 서(당수)를 맡았다. 이어 2차당의 고려공산청년회는 권오설(權五高)이
 책임비서를 맡았다. 이와 같이 조선공산당은 안동 청년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을 추진하다가 조선공산당 조직은
 파괴당했는데 6·10만세운동은 역시 안동출신 학생 권오상(權五尙)이

82) 金容稷, 『金南洙先生資料集』(집문당, 2001, 4×6배판, 총249쪽)에 1920년대 안동
 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계열 민족운동에 관한 원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선호(李先鎬)·유면희(柳冕熙) 등이 추진하여 전개했으므로 그것도 안동 작품이라 해서 과언이 아니다. 조선공산당이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했지만 식민지하에서는 민족운동을 앞세워야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민족운동의 대연합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26년에 조선공산당사건, 6·10세운동, 제2차 유림단사건, 나석주의사의 동척폭파의거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민족운동 단체의 협동전선이 추진되어 1927년 초에 신간회(新幹會)를 결성하였다. 독립운동의 협동전선은 김응섭(金應燮; 풍산 출신)이 연해주에서 임시정부 창조과를 이끌고 제창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것이 뜻대로 안되었으므로 1924년에 만주에서 한족노동당(韓族勞動黨)을 만든 것이지만, 그와같이 협동전선은 1920대 초부터 제기되고 있었다.⁸³⁾

신간회 안동지회에는 유인식(柳寅植)·정현모(鄭顯模)·권중렬(權重烈) 등의 회장단 외에 23인의 간사가 있었다. 좌우 협동전선체로 탄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안동지회의 특수한 활동으로는 풍산소작회가 주도하고 있던 소작쟁의를 지원한 것 외에 영양봉화영주지회와 공동으로 향교 철폐운동을 폈던 것이다. 향교가 식민통치에 협조하고 있던 데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양력과 세운동을 폈던 것과 일각에서 노소통죽운동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한 혁신적 일화도 전해온다. 통죽운동은 회장 유인식이 제기하였고 양력과는 영양 주곡리에서 1928년부터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곡리에는 조현영이 신간회 동경지회장을 역임하고 허현체제에서 중앙검사위원을, 조용기는 경도지회 총무를, 조치기는 중앙대의원 복대

83) 金容達, 「韓族勞動黨의 조직과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및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 중국편, 1976, 516-517쪽.

표를 역임하는 등, 신간회 관계자가 많았다.

신간회는 1931년 5월 16일에 해체하였다. 1928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지식인의 감상적 분쟁이 지적되고 노동계급에 기초한 공산당을 재건하라는 지시에 따라 1929년에 조선공산당을 해체하였다. 이어 1930년에는 만주중국이나 일본중국도 해체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없는 신간회에서는 공산주의자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 해체를 주장하고 추진한 것이다. 그때 신간회 해체후의 대책으로 안상윤·이필권·중택 등이 1931년 3월에 ‘안동코뮤니스트 그룹’(안동콤그룹)을 결성하였다. 그것을 모체로 전금옥·박금숙이 여권운동을 전개하였고, 임하그룹과 예안노동행동대를 발족시키는 등, 20여개의 지하조직이 결성되었다. 그후 영주 봉화에도 전파되어 특히 영주 수도리(무섬) 중심의 적색재건투쟁위원회는 농민조합(김종진), 반제동맹(김명진), 독서회(김우진)를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민활한 활동을 보였다. 이때 안동콤그룹에 관여된 사람이 3천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주의운동이 북부지역 일대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들은 1934년까지 모두 검거되어 그후 안동지방에서 독립운동은 민족진영 조직이든 공산진영 조직이든 거의 사라지고 개별 항쟁이 있을 뿐이었다.

1930년대 중반으로 가면 일본이 만주사변(1931)후 대륙으로 침략을 계속하던 가운데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것이 신사참배, 일본어상용, 창씨개명 등으로 나타나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인처럼 행동하고 생활할 것을 강요했다. 소위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고 새긴 비를 교문에 세우고 어린 초등학생에까지 일본 신민의 마음가짐을 강요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고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라는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없고 언제도 없었던 해괴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전쟁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법에 의하여 인력도 동원하고 물자도 동원하고 밥그릇도, 처녀도, 어린이도 동원하였다. 총동원을 위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을 결성하고 말단에는 애국반을 만들어 총동원에 차질이 없게 하였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했을 때 이 땅에는 식민지 관리의 수탈이 극대화하고 있었다. ‘아버는 보국대에 가고, 아들은 징병 가고, 딸은 정신대에 보낸 시골 할머니가 끼니를 굶은 채 청량산에서 공출할 쫄면국을 걷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게 보였다. 정말 숨막히는 세상이었다.

민족 지도자들은 변절해 갔다. 종교 지도자도 양심을 던졌다. 양심을 노래하던 민족시인 이육사(李陸史)는 새로운 꿈을 만들기 위하여 중국으로 떠났다. 어둡고 괴로운 그림자는 땅거미처럼 퍼져나갔다. 영양의 오희병(吳熙秉; 일도)·이병각(李秉珪; 몽구)·조동진(趙東振; 세림)·조동탁(趙東卓; 지훈)의 작품을 제외하면 인간스러운 노래도 문학도 찾을 수 없는 1940년대의 안동지방이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어떤 길도 없었다. 그래서 영주 안정에 살던 이현구(李鉉九)는 창씨개명에 반대하다가 자결로 삶을 마쳤다. 그러나 거의 창씨개명하던 세상이니 이현구의 자정 소식은 알려지지도 않았다. 원촌리의 이원영(李源永)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목사가 변절한 때에 독야청청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도 봉화의 청년들은 흑색자유청년연맹(黑色自由靑年聯盟)을 맺고 탈출구를 찾으려 했고,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은 조선회복연구단(朝鮮恢復研究團)을 만들어 안동의 마지막 명예를 지켰다. 그래

서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양심은 영원하다고 말한다.

3)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친 사람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자, 일본을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몇백 년 살아온 집을 버리고 망명한 사람이 안동지방에서 특별히 많았다. 아기를 가진 임부가 식민지 일본인으로 태어날 아기의 처지를 거부하고 만삭의 몸으로 엄동설한에 복讖 만주로 떠났다. 오늘날 만삭의 임부가 미국으로 떠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 안동 천전리의 김대락은 66세의 몸으로 만삭 임부인 손부와 역시 만삭 임부인 손녀의 손을 잡고 1910년 12월 24일에 만주 유하현 삼원포(三源浦)를 향해 떠났다. 어른으로 덮인 압록강을 건너 삼원포에 도착하기도 전인 향도촌(恒道村)에서 손부와 손녀가 해산하였다. 김대락은 동네 성황당에 가서 손발이 얼어터지도록 빌고 또 빌었다. 두 사람 함께 무사히 해산하였다. 늙은 김대락은 하늘을 향해 신생아 쾌당(快唐)과 기몽(麒蒙)의 건강을 빌었다. 그 아이가 커서 1940년에 30세 장년으로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하여 독립군으로 싸울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안동에서 남달리 많은 사람이 만주 삼원포로 망명했던 것은 서울 신민회에서 양기탁·이동녕 등이 삼원포 망명을 추진하고 안동의 김대락·이상룡·유인식·김동삼 등에게 연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선발대로 이회영·이동녕·이관직 등이 떠난 뒤에 비밀이 탄로나서 양기탁 등의 본진은 감금되고 말았다. 안동의 망명 일행이 도중에 그 소식을 들었으나 갈 길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하여 1백호 5백명 전후

의 인원이 용하게도 삼원포 망명에 성공하였다. 거기에서 중국인으로 변장하여 농장을 빌어 농사를 짓고 경학사(耕學社)를 설립하고, 신흥학교(新興學校)를 개교하였다. 그때 김대락은 신흥학교 학생에게 준 「권유문(勸諭文)」 첫머리에서 “쇠와 돌은 갈아낼 수 있어도 자유의 열정은 깎을 수 없고, 태산이 앞에 있어도 진보하는 길은 막을 수 없다”고 외쳤다.⁸⁴⁾ 1914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상의 문제로 독립운동을 막자, 백두산 자락에 백서농장(白西農庄)이라 위장 간판을 걸고 독립군을 길렀다.

바로 그들이 3·1운동 뒤에 일본군을 맞아 독립전쟁을 전개한 독립군의 장교들이었다. 독립군은 1919년에 한족회(韓族會)와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1922년부터는 통군부(統軍府)·통의부(統義府; 1923)·정의부(正義府; 1924)를 차례로 결성하여 싸웠는데 안동의 이상룡·김동삼·김형식·이광민 등이 독립군을 빛낸 지도자였다. 평해와 영해에서 올라간 황만영·황도영·황의영·주진수·박경중·박건·이검호 등도 국내를 드나들며 활약하였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몫을 못하자 1923년에는 상해에서 국민대표회(國民代表會)가 열렸다. 그때 김동삼은 의장을 맡아 활약했다.⁸⁵⁾ 또 1925년에는 이상룡이 임시정부 국무령(國務領)에 선임되어 상해에서 활동했다.⁸⁶⁾

84) 조동걸, 「白下 金大洛의 亡命日記」 『安東史學』5, 안동사학회, 2000, 209쪽.

85) 金東三(1878-1937)은 본명이 金肯植으로 천전리에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나라가 망하자 김형식과 함께 문중인원 수십명을 거느리고 만주로 망명하여 1914년 백소농장장, 1919년 서로군정서 참모장, 1922년 통의부 총장을 맡으며 독립군의 큰별로 우뚝 섰다. 그래서 상해에서 국내의 독립운동자 총회인 국민대표회가 열렸을 때 의장에 선임되어 부의장 안창호·윤해와 함께 독립운동의 장래를 개척하였다(趙東杰, 「一松 金東三의 一代記」(傳統名家的 近代의 變容과 獨立운동 事例) 『大東文化研究』36, 2000, 443쪽).

86) 李相龍(1858-1932)은 안동 임청각의 주인으로 본명이 李象義이다. 누대에 걸친 부호였으나 한말 의병을 일으키는 가운데 살림이 기울었다. 이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고 나라가 망하자 66세의 처남 김대락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그때 이상룡

만주의 독립군은 1920년 청산리전쟁과 그에 이은 경신참변 뒤에는 주력부대가 만주의 중부지방으로 북상 이동하였다. 1924년에 결성한 정의부가 길림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1923년에 남만주에서 참의부(參議府), 1924년에 남중 만주에서 정의부(正義府), 1925년에 중북만주에서 신민부(新民府)가 결성되어 삼부시대를 열었다. 황만영·주진수·김동삼·김형식·김원식·이광민·이태형 등의 안동 인사들은 정의부와 정의부 정당인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삼산리 출신 유연화나 왕산 허위의 가족처럼, 일부 인사는 소련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소련에서는 볼셰비키혁명으로 토지는 분배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말이 마음을 끌었다. 만주의 망명생활이 말할 수 없이 비참했으므로 새 천지를 찾아간 것이다. 직업 독립군은 그렇다고 해도 그의 가족이나 일반 망명자는 중국인의 소작인으로 생활했으니 너무도 비참했다. 1920년 경신참변에 학살당한 김동만·김성로·권기일의 유족은 더욱 비참하였다. 그때 이해동 여사는 논에 들어가 자신이 소(牛)가 되어 쟁기를 끌었고, 허은 여사는 자신이 말(馬)이 되어 산에서 나무를 등에 실어 날랐다.⁸⁷⁾

1925년에는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삼시협정(三矢協定)이 중일간

이 53세로 당내 망명자만도 수십명에 이를 정도로 대식구를 거느리고 망명하였다. 경학사 사장에 이어 1919년에는 서로군정서 독판을 맡았다. 1921년 북경에서 신채호·박용만·장건상 등이 군사통일회를 열고 대조선공화국을 수립한바 있었는데 거기서 이상룡이 대통령에 추대되었다. 그를 사양하였지만 그러한 경력을 배경으로 1925년에 임시정부 국무령에 선임된 것이다(석주선생기념사업회, 『石洲 李相龍先生遺事』 및 위의 책, 『大東文化研究』 36, 436쪽).

87) 만주 망명 동포의 처참했던 생활을 이해하자면 다음의 책을 읽어야 한다. 필자는 대학원생에게 필독 도서로 권장하고 있다. 저자인 李海東 여사는 이원일 지사의 따님으로 만주에서 장성하여 김동삼 선생의 며느리로 출가했고, 許銀 여사는 허위 의병장 집안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장성하여 이상룡 선생의 손부로 출가하여 두 사람 모두 독립운동을 보고 경험하였다.

李海東, 『滿洲生活 七十七年』, 명지출판사, 1990.
許銀,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에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독립군의 귀를 잘라 가면 돈을 주었다. 독립군의 타격이 심했다. 1927년부터는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어 민족유일당운동을 일으켰다. 민족유일당운동은 민족협동전선의 추진으로 국내외에서 동시에 일어나 국내에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만주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삼부통합에 의한 국민부(國民府)와 한족자치연합회(韓族自治聯合會)가 결성되었다. 그것이 1930년 전후의 일이었다. 그때 독립군은 자신들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하얼빈 근방의 북만주로 서서히 이동하였다. 그때 이상룡이 작고하고 김동삼이 이원일과 남자현 여사와 함께 일경에 체포되었다. 안동 망명자들은 김정식을 선두로 취원창(聚源昶; 지금의 巨源) 마을을 개척하여 새 근거지로 삼았다. 망명 당시의 청년 김형식이 원로로 민족교육을 일으키고 이광민을 중심한 새 인물 박동수·박만수(영해 출신) 등이 취원창을 이끌어갔다.

잘 알려진대로 1930년대 중반부터는 전광·김일성·최용건·김책·허형식 등이 활약한 중국공산당의 동북항일연군이 남북 만주에서 항전하고 있었다.⁸⁸⁾ 그들은 1937년 보천보 공략후 일본군의 대규모 반격

88) 동북항일연군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할 때 각처에서 일어난 유격대 병력이 통합 발전한 것이다. 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으로, 그것이 다시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거기에 조선인 병사가 많았는데 1932년에는 소위 민생단이라는 일본 밀정 조직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1935년까지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있던 조선인공산주의자 요원 5백명이 숙청된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때 요행으로 살아남은 간부급 청년이 전광(오성륜)·김일성·최용건·김책·허형식이었다.

동북항일연군에서 전광·김일성은 두만강 국경 방면에서, 최용건은 목단강 방면에서, 김책과 허형식은 하르빈 근방 송화강 방면에 배치되었다. 민생단사건이 끝나고 민족주의가 허용되자 1936년에 조국광복회를 결성하고 1937년에는 김일성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보천보를 습격하여 대성공을 올렸다. 여기서 김일성의 명성이 크게 떨쳤다. 1940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전광이 체포되고, 김일성과 최용건은 소련으로 넘어갔다. 1942년에 안동과 연비가 이어진 허형식이 전사하고, 김책도 1944년에 소련으로 갔다. 소련에서 그러한 다국적 항일군을 모아 국제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하바로프스크 북쪽 야스코예에 있던 88여단이다. 중국인 후보중이 여단장이고 그와 운남강무당 동창인 최용건이 참모, 김일성이 제일영장, 김책이 제3영장이었다.

이 강행되어 1940년부터 소련으로 넘어갔다. 그후 1943년에는 연안의 독립동맹(獨立同盟; 김두봉) 또는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무정)의 선견대로 이상조가 북만주에 파견되어 안동 인사들은 그들과 손을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방후에 월송 김형식이 평양으로 들어가 1948년 남북 연석회의 임시의장을 맡았듯이 북으로 간 사람이 많았다.⁸⁹⁾

무장독립운동은 주로 만주에서 전개됐는데 그 또 하나의 방법인 의열투쟁은 국내외에 걸쳐 널리 전개되었다. 장인환은 미국에서, 안중근은 만주에서, 이봉창은 일본에서, 엄형순·윤봉길·백정기는 상해에서, 김상옥·나석주는 서울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안동 출신 의사는 의열단의 김시현(金始顯)·김지섭(金祉燮)·김정섭(金禎燮)이 있었는데 그들은 1923년에 폭탄을 반입하다가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지섭은 동경에서 일본의회 의원과 국왕을 폭살하려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영양출신으로 무정부주의자 엄형섭(嚴亨淳)이 이규창과 함께 상해에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순국하였다.⁹⁰⁾ 의열투쟁이란 걸으로 나타난 방법은 테러와 같다. 그러나 투쟁 성격이 정의와 이익을 위한 점이 서로 달랐고, 자기를 밝히고 숨기는 것이 서로 달랐고, 특정한 상대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서로 달랐

89) 金衡植(1977-1950)은 호를 잘 써서 김월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버지 김대락과 함께 천진리 협동학교에 남다른 정성을 쏟다가 나라가 망하자 온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그때 만삭 임부 며느리와 딸을 동행했다. 아버지 김대락이 1914년에 작고한 후 『先考遺稿』를 남겨 독립운동사의 귀중한 자료가 됐다. 1919년부터 한족회 학무부장, 간사총관부 부총관, 경의부 민사위원장(내무부장), 취원창 민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1944년에는 독립동맹 북만지방장을 맡았다. 1945년 해방후 독립동맹 위원장 김두봉의 초청을 받고 평양으로 들어가 조선혁명가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48년에는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다(조동걸, 「月松 金衡植의 一代記」(전통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大東文化研究』36, 성균관대학교, 452쪽).

90) 이규창, 『運命의 餘燼』, 1992, 보련각, 208-209쪽. 이 책에는 독립운동자의 처절한 생애가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 그러므로 역사의 평가가 다르다.

안동 출신 해외 독립운동자는 주로 만주에서 활약했는데 중국 본토에서 활약한 적지 않은 지사들이 있었다. 이육사(李陸史)는 의열단이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거점 마련을 위해 잠입했고, 유림(柳林)은 무정부주의운동을 일으켜 북경과 중경에서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했다. 권준호·권오복·김영춘·박해옥·유소우·유시보·유시훈·이동진·이동학처럼 광복군에 종군한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8·15광복을 쟁취한 것이다. 쟁취한 광복을 가로막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나누어 군대를 진주시켰다. 그리고 군정을 강행했다. 광복을 빼앗아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군정 기간을 광복정국이 아닌 해방정국이라 말한다. 해방정국이란 말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기서 안동인이 추구한 독립운동의 주요 특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특징을 손꼽으면 ① 독립운동을 선구적으로 개척하였다. 1894년 의병전쟁의 시작은 안동에서 비롯되었고,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남녀노소가 망명하여 만주에서 독립군기지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여 가장 먼저 독립혁명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첫째는 유교 이상주의가 제국주의나 천민 자본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점. 둘째는 조선시대 남인의 고장으로서 노론 정권에 대한 반항이 식민통치에 대한 반항인 독립운동으로 연결된 점. 셋째는 임진왜란의 의병전통에 200년 야당의 반항 기질이 추진력을 높였다. 넷째는 사회경제적으로 한정된 토지에 인구는 증가하여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던 1910년 전후의 긴박한 사정. 다섯째는 전통시대 이래 어떤 것이라도 안동에 대하여 기

대하는 여론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심리가 작용했다는 점등이 아닐까 한다. ② 다음의 특징은 유림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을 유림이 주도했고, 사회운동도 유림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제1차 유림단사건으로 알려진 파리장서나 제2차 유림단사건인 몽골지방 독립군 기지개척 군자금 모금활동도 안동유림이 핵심적으로 활동했다. 개화를 거부하던 척사 유림이 뒤늦게 독립운동에 동참한 경우에, 동참한 후 사회주의로 경충 뿔 경우가 있는데 앞서가던 개화꾼을 추월한 쾌감이 있었다고 한다. ③ 독립운동에서도 유가 가례를 존중하였다. 무정부주의를 지향한 사람도 그랬고, 유물론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도 망명지 만주에서 제사를 잊지 않았다. 그외에도 이상룡이 유교 대동주의와 사회주의를 접목시키려고 했다던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④ 활빈당과 신돌석 의병이 활약한 이후 서민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갔다. 그리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한, 반상의 대립이 적었다는 점이 남달랐다. ⑤ 노동운동을 선구적으로 일으키며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는 등, 한국 사회주의운동에서 초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⑥ 지역으로 가장 많은 독립운동자를 배출하였다는 것은(독립운동 유공 포상자 250명 정도) 안동인 거의 모두가 독립운동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많은 독립운동 단체 대표를 배출하였다. 이상룡(경학사 사장, 임시정부 국무령) 김대락(공리회 회장) 김동삼(통의부 총장 국민대표회 의장) 김응섭(창조과 대표, 한족노동당 위원장) 김재봉(조선공산당 제일차당 비서) 유림(무정부주의연맹 위원장) 등이 그들이다. ⑦ 무엇보다 독립운동을 통하여 구시대의 봉건사상과 인습을 탈피하고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⑧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꾸준히 전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조선회복연구단이 8·15전야까지 활동했고, 만주에서도 1910년 망명 이후 1945년 취원창(聚源昶)운동에 이르기까지 끝내 쓰러지지 않고 싸우고 항쟁하였다. 그리하여 8·15 광복을 쟁취한 것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광복군이 중국전선과 인도와 버마(미얀마)전선에서 싸웠다. 미군 OSS 부대로 싸웠고 조선의용군도 중국전선에서 싸웠다. 동북항일연군에 있던 조선인 병사는 소련 88여단에서 싸웠다. 따라서 연합군의 승리는 미군이나 소련군만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독립군의 승리이기도 했다. 그것을 미국과 소련 패권주의가 가로막고 군정을 강행했다. 그리고 1948년에 자기 구미에 맞는 정권을 남북에서 탄생시켰다. 그들의 냉전을 남북에 재현시켜 극우와 극좌정권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때 중도주의는 회색노선이라 하여 남북에서 공히 암살당했다. 남북통일을 추구하던 김구는 암살 당하고 말았다. 결국 6·25 남북전쟁으로 갔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에 불과했다.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기에는 힘이 모자랐다.

7. 안동의 역사를 반성하며 (맺음말)

먼저 안동의 역사를 회고하며 특징을 짚으면 다음과 같이 회상된다.

- 1) 고려사를 밀고 이끈 안동
- 2) 유교를 일으켜 조선왕국을 건립하고 퇴계학으로 조선 성리학을 개척한 고장
- 3) 조선 중기부터 200년간 남인당을 고집하여 야당성이 강한 고장

- 4) 사족의 문중 결속이 진행되어 신분의 차이없이 문중조직이 발달한 안동.
- 5) 향리를 중심한 중인세가 남달리 강했다.
- 6) 상층문화와 민중문화가 별도로 존재했다.
- 7) 독립운동을 개척한 사람이 많은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병존하게 되었다.
- 8) 농지가 좁아 생활이 어렵고, 서민의 수탈과 근검절약으로 살았던 안동

위의 특징은 안동의 정체성을 대변한 말이기도 하다. 아울러 좋은 역사를 생산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역사를 전개할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 동력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을 키우고 극복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을 반성하면서 새 시대를 맞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반성할 점을 손꼽아 보기로 한다.

- ① 양반과 상민의 신분의식의 잔재로 보수와 진보가 양존한 안동사회
- ② 유교 편향성이 강해 다양성을 불용하고 교조주의 사고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 ③ 학문의 발달로 사람이 학문과 사상에 종속될 염려가 있다.(사상의 노예화)
- ④ 각종 선거에서 보듯이 문중 결집력이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 ⑤ 경제 생활이 빈곤하여 예술의 발달이 늦을 수 있다. 학문과 사상도 예술을 동반해야 대중에 접근하기 쉽다.

⑥ 사회주의의 급성장으로 좌우 대립의 극복과 융화가 현실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대립은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하고, 다양성은 조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대립 인자와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발전 에너지로 키워야 한다. 안동의 역사는 안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은 유동적이어서 항상 이동하는 것이다. 역사적 산물이 이동하고 또 흩어져 안동에는 과거의 잔재나 껍질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체와 알맹이를 찾아서 찌꺼기는 버리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현대화란 현대사회에 대응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지혜는 한국사적 지혜와 세계사적 지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사적 지혜는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과제 해결에 이바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사적 과제는 민주주의 개혁, 복지사회를 향한 경제 발전, 지식정보사회의 성장, 통일 조국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안동의 역사를 반성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상이나 제도에 종속되지 않도록 인간스럽게 재창조돼야 한다. 이것은 세계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어떤 사상과 종교나 제도도 인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⁹¹⁾ 그러므로 안동의 역사와 안동의 문화와 학문을 객관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객관화는 안동을 주체로 놓고 다른 역사와 문화를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하여 토론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안동의 길이기도 할 것이다.

91) 조동걸, 「21세기는 개혁 통일 복지, 그리고 인간주의 번영의 100년이 돼야 한다」 『역사비평』 50, 2000년 봄호: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계수록.